

Style 1 조선일보

AUGUST 2012 vol.78



front
STORY

패션, 예술가들을
사로잡다

cartier.co.kr

New Collection TANK ANGLAISE

Cartier



36



16

08 INSIGHT

10 SELECTION

14 **FASHION AND ARTS** 패션 하우스와 미술 작품의 만남은 왜 필수 불가결한 트렌드가 되었는가?

16 **2012 디자인 마이애미·바젤과 펜디의 창조적 교감 INSPIRATION by Craftica** 2012 디자인 마이애미·바젤 현장에서 전통과 실험 정신의 조화를 바탕으로 도전을 모색하는 펜디의 의미 있는 프로젝트 '크래프트카(Craftica)'를 만났다.

18 **CLASSICAL TRAVELER** 지난 5월 방콕에서 아시아 프레스를 대상으로 루이 비통의 2012 F/W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클래식하고 화려한 여행자의 모습을 그려낸 루이 비통의 여행.

19 **TIME FOR VICTORY** 핑 터지는 샴페인의 상쾌한 폭발음만큼이나 강력하고 생기 넘치며 파워풀한 스포츠 워치 컬렉션.

20 **ONE FINE MAN** 반듯한 얼굴, 믿음직한 남자의 이상향 그대로를 보여주는 배우 주상욱의 2012 가을 스타일.

28 **NEW AUTUMN TALE** 하우스의 시그너처 룩에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한 디올 레이디와 밀리터리 무드의 디올 옴므가 2012 F/W 컬렉션을 선보였다. **MODERN MOBILITY** 네덜란드의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부가부와 패션 디자이너 듀오 빅터앤볼프가 칼라베리아산해 새로운 유모차를 선보였다.

29 **ALL ABOUT BAGS** 시몬느가 가로수길에 완성한 세계 최초의 테마 핸드백 박물관, '백스테이지(Bagstage)'는 가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문화의 장이다.

30 **LUXE FRAGRANT** 국내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특별한 프리미엄 향수들이 속속 론칭한다. 순수한 조말론과 우아한 펜탈리곤스, 만나기 어려웠던 까르띠에까지 더욱 다채로워진 향수 컬렉션.

31 **SKIN RENEWAL** 스테디셀러 미스트에 안티에이징 기능을 더해 완벽하게 태어난 아모레퍼미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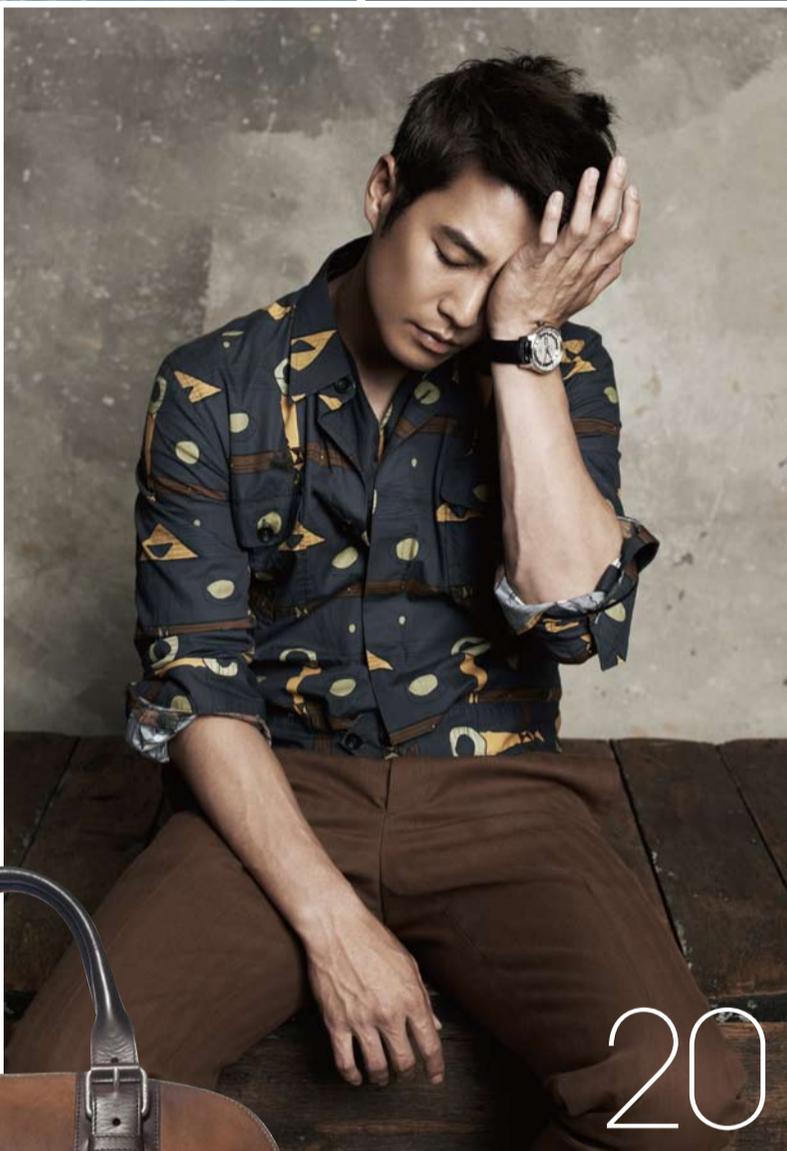
32 **STAY COOL** 여름휴가지의 강렬한 태양과 도심 속 자외선 때문에 붉게 달아오른 당신의 피부를 식혀줄 쿨링 아이템.

33 **NUMBER ONE SERUM** 에스티 로더를 대표하는 얼굴, 갈색병이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세럼이 탄생 31주년을 맞았다.

34 **카탈로니아의 실험적인 미니멀리즘 호텔 L'HOTEL LES COLS**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의 '호텔 레 콜'은 미니멀리즘을 탄생시키며 자연과 근본적인 대화의 한 형태를 제시한다.

36 **MAURITIUS VS. MALDIVES** 클라메드 리조트 두 곳, 모리셔스 알비용과 몰디브 카니를 기준으로 비슷하면서도 너무나도 다른 몰디브와 모리셔스의 매력을 소개한다.

38 **FLAT ZONE** 핫팬츠와 선 드레스, 수영복에는 플랫 샌들이 제격이다. 도심에서는 물론 해변가에서 더욱 빛을 발할 플랫 샌들 컬렉션.



20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까르띠에의 탱크 앙글레즈 주얼리 워치, 까르띠에의 전설적 아이콘인 탱크 워치의 '탱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Never Stop Tank)'라는 슬로건 아래 새롭게 탄생한 디자인이다.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아름다운 시계를 제작하고자 하는 루이 까르띠에의 열정을 그대로 반영해 형태 전체가 통합되고 긴밀히 연결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문의 1566-7277



12

Style 조선일보

Issue. 78 august 2012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현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예진 yejin.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t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 | INING PROCESS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첫째 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인 첫째 주 화요일에 배달됩니다. ※ 3·4·5·8·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Jewel SOLID THINGS

심플한 디자인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옐로 골드 가치.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비,제로원 원형 모티브 골드 네크리스
3백70만원대 **볼가리**, 파블로
파카소의 로마 파카소가
디자인한 빌라 로마 컬렉션
네크리스 1백만원대, 1880년 빈티지
열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키 컬렉션 중 오벌 키 펜던트
3백만원대, 오벌 링크 체인 60만원대
모두 **타파니**, 알함브라 모티브를
심플하게 장식화한 골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자물쇠 열쇠 모티브로
디자인한 네크리스 3백30만원대
타사키, 자연적인 무드의
패턴으로 완성한 빌라 로마
컬렉션 링 1백만원대 **타파니**, 골드
링을 여러 친 것처럼 보이는
심플한 디자인의 K-11 링 60만원대
타사키, 'LOVE'가 새겨진 심플한
골드 펜던트 네크리스 2백50만원대
까르띠에, 에디터 **베미진**



프로그래피 비주얼

Book 8월, 책을 탐하다

흔히 독서의 계절은 가을이라고 하지만 1년
중 가장 긴 휴가를 즐기는 여름이말로
책을 읽기에 좋은 시즌. 가볍게 술술 읽어
넘길 수 있는 에세이집을 찾았다면 평범한
일상을 재미있는 시선으로 바라본 <비밀의
숲(우라카미 하루키 저, 문학사상사)>을
추천한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쿨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빛나는 삶의
의미를 찾는 에세이 60편으로 구성했다.
여행에 대한 열정과 맛깔스러운
음식 이야기를 맛보고 싶다면 <미식
견문록(요네하라 미리 저, 마음산책)>을
펼쳐보자. 음식에 특별한 애정을 가진 자자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접한 음식 에피소드와 음식에 대한 지식, 문화까지 아우른 음식론을 담았다. 집에서
방콕할 예정이라면 그동안 읽지 못했던 고전에 도전하는 것은 어떨까.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그리스인
조르바(니코스 카잔차키스 저, 열린책들)>는 호쾌하고 능동한 자유인 조르바가 펼치는 영혼의 투쟁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책으로, 작가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실존 인물인 조르바를 통해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게 한다.
이미 읽었다더라도 다시 한번 읽을 가치가 있는 불멸의 고전 <위대한 개츠비(F. 스콧 피츠제럴드 저, 더글러스)>는
주인공 개츠비의 낭만적인 삶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사회와 무너져가는 아메리칸 드림을 묘사하고 인간의
근원적 욕망, 사랑과 희망에 대해 표현했으며, '세계 10대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고전소설 <폭풍의 언덕(에밀리
브론테 저, 문학동네)>은 격렬하게 증오하고 사랑하는 남자의 격정적인 사랑을 개성 있는 구어로 풀어낸 작품이다.
쫓기듯 사는 삶에 따스한 위로의 말을 전해줄 해인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해인 저, 쌤앤파커스)>은
관계, 사랑, 인생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담아 지친 당신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해준다. 다소 뻘뻘 이야기를 늘어놓는
자기 개발서에 실증을 느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필레머 저, 토네이도>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5년에 걸쳐 70세 이상 인생을 산 1천여 명의 현자들을 인터뷰해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와 살면서 얻은
답을 엮은 이 책은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줄 테니 말이다. 에디터 **권유진**



Beauty MIST MAGIC

볼래주수가 하늘을 나는 계절. 두꺼운 메이크업은 싫고 과 피지로 얼룩진 피부는
부담스럽다. 이럴 때 인기 절정을 누리는 뷰티 아이템이 있으니 미스트가 주인공. 특히 수분
공급은 기본, 피부 재생과 탄력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미스트가 사랑받는 시대다. 식물성
보습 성분과 천연 미네랄, 향산화 성분 등 엔티에이징에 효과적인 성분이 담겨 있어 토너 대신
사용해도 손색이 없으며, 거운 자외선에 달아오른 피부나 선 번을 진정하는 데도 효과적.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전이나 후 어느 때나 쓱쓱 뿌려주기만 하면 들지도 않고 건조함도
덜어준다.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아모레퍼마픽 타임 리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는 물 대신
녹차의 생잎을 그대로 짜낸 녹차 세포수를 넣은 고농축 엔티에이징 미스트(80ml 6만원).
해상 심층수로 만든 **슈에무라 딥시 워터**는 6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벌레 물린 곳, 가려움
등 피부 트러블과 염증을 부드럽게 다독여준다(150ml 3만원). **샤넬 보페 아나살 스프레이
세럼 에나지징 멀티-프로텍션 컨센트레이트**는 미세한 우 빛 입자가 피부에 빠르게
밀착해 스며드는 것이 특징. 분사 후 파우더 콤팩트로 가볍게 두드려주면 보습보송하게
마무리된다(50ml 13만원). 미스트 타입의 토너를 사용하고 싶다면 **7월 아시아 데미지
프로텍팅 토닝 미스트**를 추천한다. 식물성 향산화 성분인 아시아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모공 수축에도 효과적이다(180ml 4만6천원). **설화수
수출 미스트**는 농축된 한방 성분과 미네랄 성분 등 초기 노화를 예방하고 노 해진 탄력을
되돌리는 데 효과적인 성분을 집약했다(100ml 4만2천원). 얼굴과 보디에 사용하는 **리프레리
수딩 애프터 썬 미스트 페이스 비디**는 브랜드의 독보적인 셀룰라 콤플렉스를 담아 피부에 수분
보호막을 씌운 후 촉촉함이 지속된다(150ml 11만4천원). 에디터 **이예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왜, 패션 & 문화 복합 공간일까?

패션 피플의 감각과 정보 공유를 돕는 문화적 허브인 청담동의 명물 10 고르스 꼬모의
영향일까. 패션, 음악, 서적, 전시, 식도락 등 각종 요소들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우영미, 헨리 베글린, 에잇세컨즈 등 패션
브랜드들이 복합 문화 공간 역할을 자처하는 플래그십 매장을 잇따라 열고 있는 것.
지난 5월 3일 서울 신사동에 문을 연 여성 듀오 디자이너 우영미, 우장희 씨의 한국
최초 플래그십 스토어인 맨메이드 우영미(Manmade Wooyoungmi)는 매장과
별도로 2층에 예술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자연 채광이
스며드는 테라스와 오픈 키친 방식의 카페에서 홈메이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신사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 이탈리아 핸드메이드 럭셔리 브랜드 헨리
베글린도 유럽풍 카페를 건물 내에 들여놓았다. 올봄 국내 시장에 패스트 패션 혁명을
일으켰다는 포부를 갖고 출발한 에잇세컨즈도 이러한 흐름을 일구는 데 동참했다.
다채로운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연중 전개할 뿐만 아니라 매장 곳곳에서
개성 넘치는 전시를 수시로 만나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복합 문화
공간 바람이 부는 이유 중 하나는 패션을 바라보는 소비자들과 브랜드 업체들의 관심이
함께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패션이 소수의 전유물이나
쇼핑의 대상만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의 중요한 일부로 부각됨에 따라 업체들도
고객의 안목과 감성을 채우는 한편, 소비자들의 발길을 좀 더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에디터 **고성연**



우영미 플래그십 스토어의 쇼룸

에잇세컨즈 매장에 전시된 예술 작품



Black Beast 1940 sheet metal, bolts and paint
261.6X414X199.4 cm

Exhibition 알렉산더 칼더 조각전 <NOIR>展

움직이는 조각 '모빌'의 창시자로 현대미술과 조각사에 큰 획을
그은 알렉산더 칼더(1898~1976)의 <NOIR>전이 서울 서구동
국제갤러리(www.kukjegallery.com)에서 8월 17일까지
열린다. '누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작가의 검은색 조각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다.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인 칼더는
기계공학, 회화 등을 전공했다가 1926년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면서
나무와 철사를 사용해 움직이는 장난감과 조형물을 제작했다.
부유하는 추상적 형태들이 변화하는 움직임 속에서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는 칼더의 모빌에 대해 사상이 장 폴 시르트는 '백조와 검은
우아한 움직임'을 자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칼더의 조각 세계는
모빌과 정지된 조각인 '스태빌'이 조합된 형태로 '스탠딩 모빌'로 한층 더 발전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만든 검은색
작품으로 이뤄진 이번 전시는 미로, 문드러만 등 당대 예술인들과의 교류로 미적 감각에 큰 영향을 받은 작가의 프랑스 체류 기간을
반영한다. 특히 'Black Beast'(1940)는 칼더의 스태빌 중 손꼽히는 초기 걸작이다. 문의 02-735-8449 에디터 **고성연**

사립 Calder Foundation, New York/
Art Resource, NY(국제갤러리 제공)

부드러운 소가죽을 사용해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오렌지 컬러 솔더백. 40X29cm, 73만원 코치넬리.



유니크한 꽃단추 모양의 브로치 펜던트 70만원 루이비통.

진주와 스와로브스키 장식으로 빼어난 무드를 더한 해골 펜던트 네커스 59만원 알렉산더 맥퀸.

부드러운 코튼 소재 스트라이프 티셔츠 5900원 조아와와타베콤 매거슨 by 10 피르소 꼬모.



for her Selection

파파라치 앵글에 포착된 셀러브리티의 스타일리시한 공항 패션처럼, 실용성과 멋을 모두 살린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지브라 패턴이 돋보이는 코튼 소재 여행용 타월 48만원 매들린 by 10 피르소 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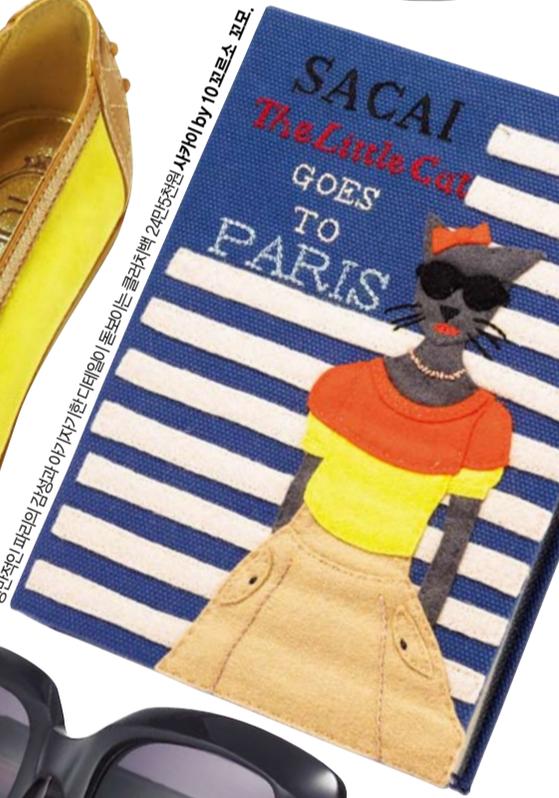
화장품이나 속옷 등의 소지품을 휴대할 수 있는 뷰티 케이스. 25X15.5cm, 2백43만원 펜디.



천연 염색한 라피아에 가죽 벨트로 멋을 더한 클러처백. 26X20cm, 2백만원대 바버리.



펠트 소재가 고급스러운 캐주얼 헤드 기어 미장사별.



농담처럼 패셔너블의 감성파이자 자그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클러처백 2백43만원 시카미 by 10 피르소 꼬모.



폴딩이 가능해 휴대성을 높인 송이 자가죽 플랫 슈즈 46만5천원 할프로렌 퍼플 레이블.



상큼한 옐로 컬러가 포인트인 스웨이드 단화 58만5천원 토즈.



템플에 브랜드의 사그나처 디테일을 더한 선글라스 가격 미장 보테가 베네타.



기대 불우풍인 캐시미어 소재의 목 베개와 수면 안대 각 1백7만원, 45만원 로로피아나.



코튼과 가죽 소재가 조화를 이룬 플라워 패턴 벨트 58만원 나모치.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돋보이는 컬러풀한 플라워 패턴 원피스 2백85만원 에뎀 by 10 피르소 꼬모.

- 바버리 02-3485-6583
- 토즈 02-3448-6008
- 로로피아나 02-546-0615
- 나나리치 02-6905-3447
- 펜디 02-514-0652
- 샤넬 02-546-0228
- 코치넬리 02-772-3143
- 루이비통 02-3444-1727
- 10 피르소 꼬모 02-3018-1010
- 알렉산더 맥퀸 02-6905-3793
- 보테가 베네타 02-515-2717
- 할프로렌 퍼플 레이블 02-545-8200



편칭 디자인이 돋보이는
부드러운 가죽 소재의
캐주얼 재킷 6백47만원
둘레맨가바나.



시원한 네이비
컬러에 유니크한
해물 패턴을 가미한
코튼 스카프 89만원
알렉산더 맥퀸.

역사가족 패턴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스카프 벨트 23만원
펠리쉬 by 지스트리트 494음모.



내추럴한 스트로
소재가 멋스러운 페도라
68만원 브루사린 by
지스트리트 494음모.



탄탄한 캔버스 소재에 송아지가죽을
트리밍한 캐리어. 35.5X56cm,
9백만원대 에르메스.



역사가족 패턴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스카프 벨트 23만원
펠리쉬 by 지스트리트 494음모.



세련되고 멋스러운
스웨이드 소재 워밍
슈즈 75만원 토즈.



고급스러운 바겐디
폴카의 스카프 이어퍼드 케이스 60만원대 루이비통

르유르 카디에
양방향 트래커링

for him Selection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설렘이 가득한 공항.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움을 잃지 않는 패션 아이템은 떠나는 순간까지 완벽한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한다.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18K 레드 골드로 제작한
오픈 워크 디자인의
스타 니콜라스 루섹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
오픈 데이트 워치
4천4백만원 몽블랑.



투명감이 느껴지는 소재로
시원함을 더한 산클라스
39만원 에르메네질도 제나.



투명감이 느껴지는 소재로
시원함을 더한 산클라스
39만원 에르메네질도 제나.



해골 모티브로
포인트를 준 블랙
헤드셋 35만5천원
스컬캐디 by 10
포르스 꼬모.



다크 그린 컬러의
가죽 워밍 브레이슬릿
34만5천원
에르메네질도 제나.



빈티지한 위상이
매력적인 빅
사이즈 토트백.
34X37cm,
2백만원대 발리.



미니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한 뉴티 스텔 세트.
13.5X9.8cm, 27만원 브룩스 브라더스.



화이트 컬러 가죽 리본으로 포인트를 준 워밍 슈즈
38만원 루이비통 by 몽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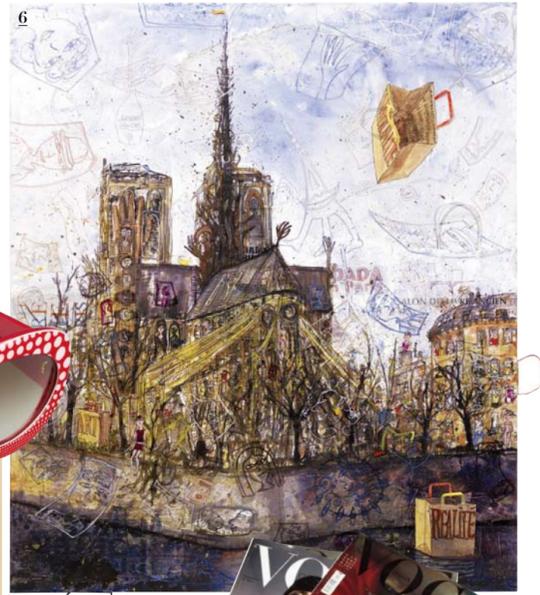


페이즐리 무늬의
버뮤다맨츠 41만5천원
브룩스 브라더스.

- 발리 02-2163-1132
- 에르메스 02-547-0437
- 루이비통 02-3444-1727
- 토즈 02-3448-6008
- 몽블랑 02-3485-6618
- 브룩스 브라더스 02-547-8883
- 고야드 02-3448-4778
- 10 포르스 꼬모 02-3018-1010
- 분더숨 맨 02-3444-3300
- 에르메네질도 제나 02-2106-5325
- 둘레맨가바나 02-3444-0077
- 알렉산더 맥퀸 02-6905-3793
- 지스트리트 494음모 02-3449-4494

Fashion and Arts

패션이 미술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패션 하우스의 제품들이 미술가들에게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미술가들 역시 패션의 매력에 사로잡힌 것일까? 이제는 미술가뿐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가 미술관에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다. 패션 하우스와 미술 작품의 만남은 왜 필수 불가결한 트렌드가 되었는가?



브랜드에서 영감을 얻다

미술 딜러들은 잇 백(it bag)을 사는 것보다 그림을 사는 것이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조사 결과 실제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미술가들이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백과 구두를 작품 소재로 삼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들의 작품에서 샤넬, 페라카모, 루이 비통의 백이 발견되는 일이 많아 흥미롭다. 미술가에게 패션 하우스의 제품은 어떤 의미일까? 작품에까지 응용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트링크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고 있는 미술가 김준은 작품 제목에서부터 아예 패션 하우스와 럭셔리 브랜드 이름을 차용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럭셔리 브랜드의 로고도 자주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시리시하다 다르다. '드렁큰(Drunken)' 시리즈는 샤토 무통 로칠드, 로마네 콩티, 돔 페리뇽 등 고가의 와인 로고를 사용해 특유의 문신(tattoo) 연작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가는 '드렁큰-무통 로칠드(Drunken-mouton Rothschild)', '드렁큰-로마네 콩티(Drunken-romanee Conti)' 등의 작품에서 사랑에 취하고, 종교에 취하고, 브랜드와 술에 취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노라고 이야기한다. 인간의 마음에 담긴 문신을 추적하는 김준 작가의 예술가로서의 사명감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로얄 코펜하겐 등 명품 도자기 브랜드 제품의 파편으로 인체를 표현한 '프래질(Fragile)' 시리즈는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내면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페라카모, 몽블랑, 샤넬, 까르띠에 등 국내외 유명 제품의 로고는 그의 작품 소재가 되어 브랜드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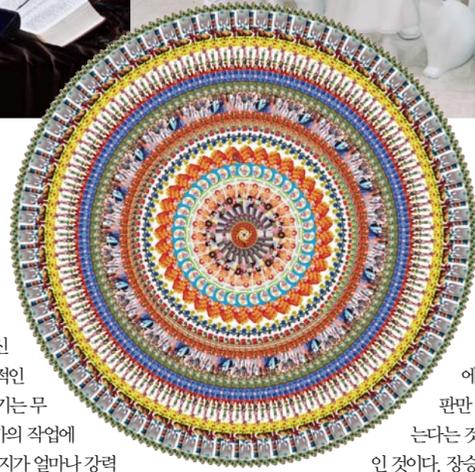
전통 회화와 현대 정물의 만남

김지혜 작가의 '책거리 그림 Luxury (Still) Life' 시리즈는 한국의 전통 민화 '책가도에 현대인의 소비생활 패턴을 드러내는 로고와 소품을 반영한 재미있는 작품이다. 책가도의 형태에 여자라던 누구나 갖고 싶어 한다는 에르메스 버킨 백과 루이 비통 뽀빠용 백이 그려져 있다. "책과 꽃을 중심으로 한 시대의 사물을 그리는 것은 동서양의 정물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물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동서양 사상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지요." 김지혜 작가는 전통 문양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의 로고를 채워 넣었다. 21세기를 상징하는 소비문화와 삶의 허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의 책가도는 사물을 통해 다복과 기원을 상징하는 데 반해, 서양의 정물화는 삶의 덧없음과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서양의 전통 정물화에 현대의 패션 아이템을

배치한 사진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현목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자. 부드럽게 구겨진 화이트 컬러 테이블클로스 위에 은으로 만든 주전자와 찻잔이 놓여 있고, 탐스러운 포도와 사과, 빵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샤넬 로고가 선명한 클러치백이 놓여 있어 관람객이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눈이 번쩍 뜨일 만하다. 또 다른 작품에서는 마치 피처럼 붉은색 벨벳 위에 체스판과 진주 목걸이, 은화와 수정 구슬이 흩어져 있고, 에르메스 버킨 백이 가장 돋보이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저 백들은 작가 자신의 것일까, 누군가에게 빌린 것일까? 세속적인 궁극함을 뒤로하고 고전적인 네덜란드 정물화를 연상시키는 사진 작품을 통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서울대학교미술관의 김형지 큐레이터는 정현목 작가의 작업에서 볼 수 있는 회화적 형식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스미디어의 이미지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깨닫게 해준다고 설명한다. "정현목 작가의 사진 작품을 통해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에서 해골이나 거울, 꺼진 양초 등을 등장시켜 메멘토 모리와 바니타스의 의미를 강조했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꽃병의 꽃이 시들어 생명력을 잃어가듯이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가방 역시 금세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의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인생무상을 상징하는 바니타스(Vanitas)가 과거와 현재의 정물화 속에 공통적으로 녹아 있다는 사실이 흥미진진하다.

현대 라이프스타일의 완성

서울대학교미술관 MoA에서는 패션과 미술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는 <보그 모먼트(Vogue Moment)> 전시가 열렸다. 양문기 작가는 무거운 돌에 샤넬과 크리스찬 다울 로고를 새겨 넣은 설치 작품을 선보이며 돌의 물성과 패션 하우스의 로고가 지닌 상징적 속성에 집중하고 있다. 김지민 작가의 작품은 언뜻 보면 패션과는 별 연계성이 없어 보인다. 중년 부부와 어린이, 젊은 남녀 커플로 이루어진 조각을 설치했는데 전형적인 현대의 가족 구성원을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 가운데 있는 볼록렌즈 안에는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럭셔리 브랜드의 가방과 시계, 자동차, 화장품 등이 동심원 형태로 뻗뻗이 들어차 있다. 매스미디어에 의해 끊임없이 강조되고 주입되는 소비사회의 필요 충분 요소들이 현대인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직유하고 있는 듯하다. 창립아트센터의 장승현 디렉터는 미



술가의 작품에 패션 하우스가 일종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과거의 정물이 그랬듯이 현대의 소비 스타일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영국 팝아트의 선구자인 리처드 헤밀턴이 작품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1956년)에서 현대사회와 소비에 대해 본격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작가들 역시 그와 같은 팝아트 장르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크시대의 정물화가 시대상을 반영했듯이 바로 지금의 라이프스타일을 작품 속에 포함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미술가들이 현대사회의 소비에 대해 비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미술품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소비를 부추기는 원동력이라 새로운 스타일의 시발점인 것이다. 장승현 디렉터는 일련의 작가들은 단순히 브랜드를 차용했다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고 스타일을 선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패션 하우스의 제품 역시 정지되어 있지만 미술품처럼 고상하게 우리 곁에 파고들어 우리와 호흡하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고 있지 않은가.

쇼핑백에 사랑을 싣고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을 벗어나 소비자사회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작가들도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독일 미술가 티츠(Thitz)는 세계 도시의 쇼핑백을 수집해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1985년 관람객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위해 종이 쇼핑백을 활용한 작품을 처음 선보이기 시작한 그는, 방문한 도시에서 수집한 쇼핑백 위에 그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과 거리를 그린다. 작가는 쇼핑백과 함께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쇼윈도에서 럭셔리 브랜드가 전시하는 잠깐 동안의 감동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서울을 주제로 한 쇼핑백 연작에는 현대백화점, 페라카모, 쾰렌 등 도심에 물들이는 인기 브랜드들이 등장한다. 스스로가 패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레드와 옐로 컬러의 구두를 한 쪽씩 신고 다니는 작가 본인도 작품 속에 등장해 서울 거리를 누비고 다닌다. 티츠는 구두를 컬렉션하는 스타일리시한 미술가이며, 구두와 슈트리에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만든 적도 있다. 장승현 디렉터는 상품을 포장하는 쇼핑백의 기능과 도시에서 건물들과 어우러진 사인이 사람들과 섞여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를 만들고, 그 도시의 색깔을 만들어 낸다고 평한다. 티츠가 쇼핑백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하찮은 쇼핑백이 사람의 마음

을 담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그는 쇼핑백 작품을 통해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물건의 형태를 그려내는 것에서 견물생심(見物生心)의 마음을 노래하는 작가도 있다. 미술가 최지영은 자신이 형성하고 싶은 물건들을 그린다곤 이야기한다. 마치 그림을 물감 뿐 물에 넣었다가 뺀 것처럼 서정적인 색감의 세면대, 욕조, 상들리에, 의자 등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욕조와 쿠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단지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테리어 제품을 가지고 싶는데 모두 가지기는 어려우니 그림으로 그 마음을 지워내는 것입니다." 예술의 세계에서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최고의 미덕이다.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싶다고 부르짖던 앤디 워홀이 결국 최고의 미술가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 솔직한 때문이었으리라. 아예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이 미술관에 전시되는 것도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다. 홍익대 홍문관 현대미술관에서는 <카스텔바작 아카이브> 전시가 열렸고, 파리 장식미술관에서는 <루이 비통과 마크 제이콥스> 전시가 열리고 있다. 팝 가수 레이디 가가와 비온세가 좋아하는 디자이너로 알려진 프랑스 디자이너 카스텔바작의 의상은 대중 스타의 후광을 등에 업어 말 그대로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어떤 미술가보다 파워가 강한 그의 작품이 미술관으로 직행한 것은 당연히 알아준다.

<루이 비통과 마크 제이콥스>는 19세기 패션 산업을 리드한 루이 비통의 창시자, 루이 비통과 그의 뒤를 이어 21세기를 이끌고 있는 수석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전시다. 루이 비통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유명한 미술가인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을 백에 그려 넣고, 최근엔 몰방울무니로 유명한 구사마 야요이와의 콜라베이션 등을 시도한 혁신적인 브랜드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술과 패션의 결합이 아닐 수 없다. 아름다움을 탐닉하는 것이 예술이라면, 패션만큼 예술의 의미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없다. "패션은 드레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패션은 하늘과 길거리에도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삶,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샤넬의 창시자, 가브리엘 코코 샤넬 여사는 이미 패션이 미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미술과 패션의 상관관계에 대해 탐구하다 보니 다시금 원론적인 궁극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왜 우리는 미술 작품을 보고 감동하는가? 왜 우리는 잇 백을 소유하며 행복감을 느끼는가? 감동을 선사한다는 것이 아름다움의 레조네 데트르(raison d'être, 존재 이유)라면, 바로 이것이 패션과 미술의 공통점이기 때문 아닐까? **IS**

글 이소영 (서울, 그 카페 홀더), (사진 미술에 중독다)의 저서 사진 창립아트센터, 서울대학교미술관 MoA, 아트링크



2012 디자인 마이애미 · 바젤과 펜디의 창조적 교감

inspiration by craftica

섬세한 장인 정신을 현대적 감각과 혁신적인 방식으로 계승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넘다른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펜디(Fendi), 지난 2008년부터 세계적인 디자인 행사인 디자인 마이애미(Design Miami)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다져온 펜디가 올해는 스위스 북부 도시 바젤을 찾았다. 6월 하늘을 창조적 영감으로 가득 채운 2012 디자인 마이애미·바젤의 현장에서 전통과 실험 정신의 조화를 바탕으로 도전을 모색하는 펜디의 의미 있는 프로젝트 '크래프트카(Craftica)'를 만나봤다.

실험 정신과 전통미를 품은 이탈리아 듀오의 디자인 세계, 펜디 철학과 깊은 골

투명한 유리 갖을 은은한 색조의 가죽 끈으로 묶어 천장에 매단 앙증맞은 조명, 마치 워싱 과정을 거친 듯 흐드러진 가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선 껍질로 제작했다는 독특한 느낌의 의자와 탁자, 커다란 조개껍질이 달린 국자 모양의 도구, 불투명한 얇은 고무풍선처럼 보이는 소재로 된 주머니와 꽃병, 활처럼 비스듬히 흰 나무를 활용한 운치 있는 옷걸이, 양피지 위에 민속화를 연상케 하는 소소한 일상의 귀여운 그림들을 입힌 액자... 지난 6월 11일, 스위스 바젤 시내에서 개막된 디자인 마이애미·바젤 포럼에서 행사장 2층에 자리한 펜디 부스에 전시되어 있는 사물들은 현대와 과거의 시공간이 어우러진 듯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흰색과 회색으로 이뤄진 무채색 공간을 바탕으로 가죽과 대리석, 유리, 해면, 조개 등 자연 소재들이 엮어내는, 전형적이지 않은 매력이 돋보인다. 마치 중세의 숙련된 장인들을 타임머신으로 특별히 초빙해 현재의 디자이너들과 손잡고 거실을 꾸미게 해 탄생한 듯한 독특한 결과물이라고 할까. 이 부스에는 비록 과거에서 날아오진 않았지만 젊은 펜디의 장인이 실제로 자리 잡고 앉아 디자이너들의 스케치를 토대로 이 공간에 어울릴 만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폐기된 가죽과 음식 쓰레기에서 나온 생선 껍질 그리고 벌레들의 배설물을 섞은 재료 등을 사용한다. 현대판 길드를 연상케 하는 흥미진진한 디자인 워크숍이었다. 이처럼 '컨템퍼러리 리빙'의 맥락에서 장인의 정수가 담긴

가죽 수공예의 미학을 근사하게 펼쳐 보인 주인공은 안드레아 트리마르키(Andrea Trimarchi)와 시모네 파레신(Simone Farresin)이라는 이탈리아 출신 젊은이들로 구성된 스튜디오 포르마판타스마(Formafantasma), 이탈리아어로 '유령의 형태'라는 뜻을 지닌 이 재미난 이름을 자신들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붙인 이들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펜디의 제작 과정에서 남은 재료를 이용해 수공예 정신을 담은 독창적인 창조물을 만들어가는 작업 과정을 지원하는 디자인 퍼포먼스(Design Performance) 프로그램에서 올해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재기 발랄한 2인조다. 펜디의 후원으로 이 프로그램이 벌써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는 배경을 놓고 볼 때 이 듀오가 최초의 이탈리아 출신 디자이너라는 사실이 다소 놀랍다. 더욱더 흥미로운 건 현재 이들의 본거지가 모국이 아니라 네덜란드 남부 도시인 에이트호번이라는 점이다. 알고 보니 이들은 10대 시절 피렌체에서 만났지만 밀라노 가구박람회에서의 개념 디자인(Conceptual Design)의 요체를 간직하고 있는 에이트호번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건너온, 주관이 뚜렷한 자유로운 작품 세계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 네덜란드로 향했다. "유령의 형태라는 뜻의 스튜디오 이름에는 우리의 디자인 작업이 형식적인 연구 조사가 아니라 개념적 접근 방식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형태라는 건 거기에 담긴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하고 싶어요." 올해 29세인 안드레아 트리마르키는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했다. 개념 디자인



1 현대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공간과 장인 정신이 깃든 수공예 미학이 어우러진 디자인 마이애미·바젤의 펜디 전시회 크래프트카(Craftica). 2 수년간 디자인 마이애미와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펜디는 가죽을 비롯한 자연 소재를 수공예 기술로 다루는 디자이너들과 장인의 협업이 이뤄지는 과정을 관람객들에게 직접 보여줬다. 펜디 장인(왼쪽)과 새로운 작업을 진행 중인 이탈리아의 젊은 디자이너인 듀오 안드레아 트리마르키(가운데), 시모네 파레신(오른쪽). 네덜란드 에이트호번에서 스튜디오 포르마판타스마(Formafantasma)를 운영하며 환경의 공감을 품고 있는 2인조다. 3 대리석 기둥을 양쪽에 매달고 가죽을 씌운 테이블과 유기적인 느낌의 형태와 질감을 자아내는 오브제들. 4 와인 잔을 연상케 하는 투명한 유리 갖들을 각각 펜디의 셀러리아 가죽 끈으로 연결해 만든 조명. 5 마치 민속화처럼 일상의 소소한 장면을 양피지 위에 스케치로 담은 그림을 넣은 액자들. 6 7 크래프트카 전시회에서는 폐기된 가죽과 음식 쓰레기에서 나온 생선 껍질, 벌레의 배설물을 섞은 재료 등 흥미로운 소재를 사용한 수공예 작품을 선보였다. 이러한 작품들이 대리석, 유리, 해면, 조개 등 다양한 소재와 다시 조화를 이루면서 혁신적인 미를 창출해냈다. 8, 9 연어, 배드라지 등 생선 껍질을 활용해 만든 앙증맞은 스톨(Stool).



의 정수를 흡수한 학도 출신다운 발언이다. 이들이 크게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의 디자인 그룹으로는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고민해 재정의함으로써 탈조형적이고 실험적인 동시에 실용적이고 친자연적인 제품을 선보여 1990년대 혁신 세력으로 각광받은 드로그 디자인(Droog Design)이 있다. 이들 듀오는 이 같은 배경 아래 세운 개념적인 토대 위에 이탈리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의식을 버무린 자신들만의 디자인 언어를 창출해냈다. 10세기 아랍의 침략으로 이슬람 문화의 자취가 남아 있는 시칠리아의 수공예 기법을 적극 반영한 향아리 시리즈를 2009년 졸업 작품으로 선보여 호평을 받은 것. 곤충의 배설물을 활용한 독특한 바이오 신소재를 사용할 정도로 도전적인 신세대이지만 전통 공예의 쇠라이나 이민자, 빈곤 등을 작품으로 표현할 만큼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디자인 세계는 미래 지향적인 실험 정신과 전통의 미학을 조화롭게 다루는 방식의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펜디가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과 닮았다. 세련되면서도 정감이 가는 따뜻한 색채를 다루는 솜씨도 뛰어나다. 펜디가 디자인 마이애미와 손잡고 펼친 올해의 디자인 퍼포먼스 프로젝트인 '크래프트카'를 맡은 '젊은 피로 충분히 낙점을 받을 만하다.

파토 아 마노 정신을 구현하는 디자인 퍼포먼스 프로그램

이들이 단 한 번도 가죽을 소재로 한 작품을 시도해본 적이 없다는 이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펜디의 액세서리 부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실비아 펜디가 강조해왔듯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수공예의 아름다움을 조명하는 파토 아 마노(Fatto a mano, 이탈리아어로 '핸드메이드'라는 뜻) 정신을 전제로 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계 없이 젊고 참신한 재능을 찾는'이라는 방침을 고수해오고 있기 때문.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젤을 방문한 게 처음이라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밝힌 실비아 펜디는 '스타일 조선일보'와 나눈 인터뷰에서 "디자인 퍼포먼스 프로젝트를 맡을 디자이너를 선정할 때 눈여겨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혁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포르마판타스마의 작품처럼 수공으로 섬세하게 제작해 고풍스러우면서도 컨템퍼러리 정신이 번득이는 색다른 작품을 보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선발된 디자이너들은 준비 과정에서 펜디로부터 재료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필요하면 조년도 구할 수 있지만 디자인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고 한다.

펜디는 2008년 디자인 마이애미의 유명 인사 초청 대담 프로그램인 '디자인 토크' 시리즈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펜디 가문의 딸인 실비아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선발한 재능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을 통해 수공예 장인 정신을 알리고 고양하는 디자인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발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밀라노 가구박람회에서의 '크래프트 펑크(Craft Punk)'로 그 첫 단추를 끼웠다. 그로부터 밀라노와 마이애미를 오가며 다섯 번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고, 바젤을 찾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디자인 마이애미·바젤은 해마다 6월이면 전 세계 예술 애호가들을 스위스로 몰려들게 하는 대형 미술 장터인 아트 바젤과 나란히 열리는 글로벌 포럼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 각국에서 35개의 주요 디자인 갤러리 그리고 펜디, 스와로브스키와 같은 유명 브랜드가 참가해 안목 높은 수집가들을 매료시킬 만한 수준의 다채로운 작품을 앞다퉈

내놓았다. 실비아 펜디는 이처럼 장소의 범위를 넓히면서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디자인 퍼포먼스의 추이에 대해 "바젤 뿐 아니라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생기면 자원할 의사가 있다"며 장인 정신을 수호하는 데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내비쳤다. 또 "펜디와 인연을 맺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커나가는 걸 보면 정말 흐뭇하다"라고 덧붙혔다. 일례로 2009년 밀라노에서 열린 크래프트 펑크 행사에서 등반가가 없는 가죽 의자를 출품한 사이먼 하신이 훌쩍 성장한 모습으로 작품 전시를 위해 이번 행사장을 찾았는데, 펜디의 상징인 '셀러리아' 라인의 한정판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녀는 "사이먼의 가죽 의자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제가 최초의 수집가일 걸요"라며 생긋 웃었다. 또 올해의 크래프트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원시적인 미와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지닌 이탈리아 청년들의 작품이 세계 새로운 감성을 불러넣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과제를 수행한 펜디의 장인들도 창조적 영감을 듬뿍 받았을 것입니다."

현대의 기술과 감각에 힘입어 진화하는 장인 정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별도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듀오는 펜디와의 협업에 대해 "풍부한 영감을 준 작업"이었다며 긍정적 단어들을 쏟아냈다. "오늘날에는 '공예'라는 단어가 마케팅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펜디는 그런 점에서 매우 특별한 파트너였어요.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수공예가 그들이 하는 일의 요체거든요." 피렌체에 동거를 둔 펜디의 생산 기지에 내려가 직접 가죽을 다루는 공장에 참여하면서 장인들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안드레아와 시모네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지만 정말 얻은 게 많다"며 입을 모았다. "특히 처음 접한 가죽이라는 소재는 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매력에 있는 소재였는데, 가죽 공예에 임할 때는 적절한 손질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칫하면 고유의 질감과 자연스러운 색을 잃어버리기 십상이거든요." 이들이 환경에 상응한 관심을 표명해온 배경을 알기에, 비록 펜디의 패션 하우스 제작 공정에서 남은 재료를 사용하는 했지만 혹시라도 가죽이라는 소재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진 않았는지 궁금해졌다. "가죽은 사실 가장 오랜 기공 역사를 지닌 재료잖아요. 신체를 보호하고 먹고살기 위해 수렵을 하던 원시시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다른 어떤 재료보다도 인간과 자연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잘 나타내는 게 가죽인 것 같아요." 역사나 문제의 본질은 자연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온 인간의 생존 구도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반칙을 하고 범법 행위까지 일삼는 인간의 잘못된 방식에 있는 것이라는 데 이들은 동의한다. 신기한 점은 '크래프트카'에 선보인 이들의 작품이 모양새나 질감, 배합이 독특해 이색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제로 사용한 재료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흔히 보고 얻을 수 있는 '서민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펜디에서 쓰고 남은 가죽뿐만 아니라 연어, 송어, 농어, 돼지, 조개껍질 등 먹다 남은 식자재와 유리, 나무, 해면 등 우리에게 친숙한 재료들을 엮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비단 가죽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그러한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귀하지 않은 재료로 만든 저희 작품들이 나름 독특하고 '있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저희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자주 쓰는 곤충의 배설물과 레진을 섞어 만드는 독특한 재료는 18세기에 사용하던 방식에서 차용한 건데, 치과 의사의 블로그에서 힌트를 얻었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꽤나 '있어' 보인다. 섬세함과 도전 의식을 동시에 갖춘 중세의 장인 정신을 추구하며 태고부터 친숙한 재료를 현대의 감각과 기술로 풀어낸 포르마판타스마의 두 청년. 이들이 펜디의 '크래프트카' 프로젝트에서 일궈낸 결실은 단순해 외형적인 디자인이나 기술의 진일보가 아니라 장인 정신의 현대적 진화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19** 에디터 고성연(스위스 바젤 현지 취재)

classical Traveler

지난 5월 방콕에서 아시아 프레스를 대상으로 루이 비통의 2012 F/W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여성복과 남성복은 물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백과 슈즈, 워치 컬렉션을 비롯해 독자적인 여행 짐 싸기 기술까지 보여준 아트 오브 패키징까지. 클래식하고 화려한 여행자의 모습을 그려낸 루이 비통의 겨울 여행.

새로운 시즌을 알리는 루이 비통의 여행자

지난 파리 패션 위크의 루이 비통 쇼가 열린 루브르 정원 텐트. 정각 10시가 되자 루이 비통 열차는 요란한 기적 소리를 내며 쇼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시즌 호텔 엘리베이터 안과 회전 목마에 이어 이번엔 또 어떤 무대를 선보일까 무척 궁금했는데, 여행자의 환상을 그대로 재현한 듯 거대한 열차를 무대 가운데로 끌어들이 새로운 판타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희뿌연 증기 구름 사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인들이 내리기 시작했고, 제복을 입은 포터는 여인의 가방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서정적이면서도 웅장한 한 편의 고전 영화를 보는 듯했던 루이 비통의 2012 F/W 컬렉션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 5월 방콕에서 아시아 프레스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재현한 것.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아이템 중 여성복과 남성복 각각 다섯 가지 룩을 미니 런웨이 형식으로 선보였다. 마크 제이콥스가 "다른 시대에서 온 듯한 것"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했듯, 1960년대와 1970년대에서 영감을 받아 그 시대를 대표하는 패턴이나 색상을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화려한 금실로 수놓은 브로케이드 드레스, 더블 라펠과 타조가죽 소매의 코트를 비롯해 보석 장식을 패치워크한 재킷은 그야말로 럭셔리 정수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장식은 복잡하다고 느껴질 만큼 눈부시고 화려하게, 소재와 디테일은 극도의 하이엔드를 지향하면서도 실루엣은 간결하게 완성해 대립의 미학을 보여주기도 했다. 컬렉션 전반을 지배한 A라인 실루엣은 앰파이어 라인의 드레스나 울 코트, 미디 길이 스커트로 표현되었고, 좁은 어깨에 과장된 듯 커다랗고 둥근 형태의 라펠이 달린 울 코트는 귀족적이면서도 사랑스러움을 원하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루이 비통 모노그램 꽃문양을 연상케 하는 커다란 보석 단추는 룩에 활력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많은 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코트를 스커트 위에 레이어드 하고, 스커트를 바지 위에 레이어드하는 등 겹쳐 입는 방식은 실루엣을 길게 연출해주는 동시에 우아함을 배가시켰음은 물론이다. 새로운 룩만큼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백과 슈즈는 이번 시즌 컬렉션 피스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백 스피디와 클래식로 자리 잡은 에피 레인보, 데님 소재 쇼퍼 백 등 커머셜한 라인도 볼 수 있었다. 프레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것은 거의 모든 룩에 매치한 엄청난 높이의 메리제인 슈즈와 남성 옥스퍼드 슈즈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힐. 송아지가죽부터 타조, 악어 등 이그조틱 레더까지 다양한 소재로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되었고, 스트랩에 달린 둥근 보석 버튼으로 볼드한 멋을 더했다.

모던한 전사의 이미지를 구현한 남성복

루이 비통 남성복 디렉터 김 존스(Kim Jones)는 1970년대 전설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안토니오 로페즈(Antonio Lopez)에게 영감을 받아 컬렉션을 완성했다. 김 존스는 "1980년대 파리에 끼친 일본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오는가에 흥미가 생겼다. 내게 일본과 도쿄는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루이 비통의 모노그램 패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식 그래픽 스타일로 완성한 모노그램 플라워가 바로 그것. 기모노 디테일을 차용한 셔츠, 코요테 퍼 트리밍 볼머 점퍼, 그레이 울 코트 등 모든 룩에 로페즈의 시그니처인 화살 모양과 깃털 장식 핀을 장식해 모던한 전사의 이미지를 구현해냈다. 햇빛을 받지 않아도 반짝이는 폴오버, 베이스볼 형태의 재킷은 멋쟁이 남성들의 위시 리스트를 채울 것이 분명해 보였다. 영감의 원천인 파리와 도쿄 스타일은 액세서리에서 보다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베레모에 장식한 깃털 장식 핀, 로프 프린트의 스카프와 담요, 악어와 도마뱀 등 진귀한 가죽으로 만든 포트폴리오 백 등이 그 예다. 한쪽에서 진행된 아트 오브 패키징(Art of Packing)도 눈길을 끌었다. 여행 가방을 꾸리는 루이 비통만의 특별한 기술로 주말 여행자를 위해 키폴에 짐 싸는 법을, 비즈니스맨을 위해 페가세에 짐을 차곡차곡 넣는 법을 직접 시연해 보였다. 팬츠와 셔츠의 구김을 최소화하고, 액세서리와 슈즈를 함께 보관하는 등 여행 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다. 에디터 **이예진**



1 한쪽 공간에는 시린 장식의 토트백과 메리제인 힐 등 2012 F/W 여성 액세서리를 전시했다. 2 루이 비통의 망부르 워치 컬렉션. 컬러풀한 악어 가죽 스트랩과 볼드한 다이얼의 조합이 멋지다. 3 프레젠테이션에서 선보인 다섯 가지 의상. 4 울거울엔 라펠 위에 핀 장식을 더해볼 것. 화살 모양과 깃털 장식 핀은 남성 컬렉션을 설명하는 중요한 액세서리다. 5 눈부신 보석을 화려하게 세팅한 롱 베스트 코트와 팬츠는 하이엔드 럭셔리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룩에 매치한 모자는 스테판 존스의 것으로, 긴 비율과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는 데 한몫했다. 6 우아한 룩을 완벽하게 마무리 해 줄 빈지. 7 보석 장식 버클이 돋보이는 아찔한 높이의 메리제인 슈즈.



time for Victory

팡! 터지는 삼페인의 상쾌한 폭발음만큼이나 강력하고 생기 넘치며 파워풀한 스포츠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씨마스터 아쿠아테라 2012 런던올림픽 컬렉션 크로노그래프 지난 80년간 올림픽의 공식 타임키퍼 역할을 수행한 오메가의 2012년 런던올림픽 에디션 워치. 딥 블루 컬러 다이얼에 오메가의 코-액시얼 3313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44mm의 볼드한 케이스 뒷면에는 런던올림픽 로고가 양각되어 있다. 8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샤넬 J12 마린 워치 J12 론칭 10주년을 맞이해 선보인 마린 컬렉션 워치. 초침과 분침을 블루 컬러 세라믹으로 코팅해 물의 흐름에 따라 시간이 가는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마린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물이 잘 빠져 나갈 수 있게 러버 브레이슬릿을 패턴 처리했고 30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7백51만원. 문의 02-3442-0962

바세론 콘스탄틴 오버시즈 크로노그래프 퍼페추얼 캘린더 티타늄 베젤에 스틸 케이스를 매치한 독특한 디자인의 스포츠 워치. 케이스 사이즈가 42mm에 달하는 볼드한 스포츠 워치지만 브랜드의 우아한 아이덴티티를 담아 박력 있고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퍼페추얼 캘린더에 문페이즈와 크로노그래프 기능까지, 남성들이 극찬하는 기능을 모두 갖춘 진정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다. 전 세계적으로 단 80개 한정 판매한다. 8천만원대. 문의 02-796-4510

브라이틀링 크로노맷 GMT 브라이틀링의 두 번째 자체 제작 무브먼트인 칼리버 04를 장착한 워치. 크라운을 앞뒤로 돌리는 간단한 조작 방법으로 듀얼 타임 존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70시간 파워 리저브, 50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1천2백만원대. 문의 02-3448-1230

해리 윈스턴 오션 다이버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장착한 스포티한 워치. 로즈 골드와 잘리움을 콤비로 매치한 화려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 케이스 지름이 44mm에 달하고 42시간 파워 리저브, 200m 방수,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췄다. 가격 미정. 문의 02-540-1356

위블로 킹 파워 UEFA 유로 2012 우크라이나 UEFA 유로 2012 토너먼트를 위해 만든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 48mm의 볼드한 디자인으로 남성미가 넘치는 화려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45분 카운터가 9시 방향에 위치해 축구 게임의 잔치를 상징한다. UEFA 공식 로고가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에 새겨져 있으며 우크라이나 국가의 파란색을 표현했다. 5천만원대. 문의 02-2118-6208

IWC 포르투기즈 오프 클럽 크로노그래프 브랜드의 스테디셀러인 포르투기즈 워치에 스포티한 기능과 디자인을 더한 새로운 버전의 워치다. 칼리버 89360 무브먼트를 탑재했을 뿐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의 크로노그래프 시간 기록을 장착해 시와 분을 하나의 창에 기록해 보여준다. 러버밴드와 볼드한 케이스가 멋스럽다. 1천7백만원대. 문의 02-2639-1950

브레게 마린 컬렉션 우아한 로즈 골드와 스포티한 러버밴드의 매치가 의외로 멋지게 어울리는 브레게의 마린 컬렉션 워치. 다이얼에는 우아한 웨이브 패턴의 기요세 무늬가 새겨져 있다. 칼리버 517 GG 무브먼트를 장착했고 스크루 록 크라운을 세팅해 10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스포츠 워치지만 브랜드 고유의 클래식함과 우아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2천7백만원대. 문의 02-3438-6218 에디터 **배미진**



유니크한 패턴의 네이비 셔츠와 브라운 팬츠 모두 가격 미정
Z 제나. 심플한 디자인의 드빌 아워버전 애플워치 클린더 워치 1천1백만원다 오메가.

와인 컬러의 터틀넥 78만원, 롱 코트 2백98만원 닥 바벳, 실크 소재 팬츠 1백만원다, 브라운 윌링 슈즈 가격 미정 구찌.

ONE FINE MAN

사려 깊은 눈빛과 반듯한 얼굴, 믿음직한 남자의 이상향 그대로를 보여주는 배우 주상욱의 2012 가을 스타일, *photographed by kim young jun*



실버 컬러 자카드 재킷
2백69만8천원
존 갈리아노.
네이버 팬츠 가격 미정
잡신더, 그레이 티셔츠,
블랙 워킹 슈즈 모두
가격 미정 슬리드 윌트
by 우영미.

니트 소재의 다크
그레이 재킷
가격 미정 미쓰니.



그린 컬러 실크 셔츠,
골드 스타드 장식
팬츠, 그레이 스웨이드
재킷 모두 가격 미정
베르사체,
레디와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드비어스.



브라운 컬러의 스탠드
칼라 셔츠 가격 미정,
벌카인 와인 컬러 니트
2백만원대, 플라워
프린트 팬츠 가격 미정,
브라운 라이딩 부츠
1백만원대 모두 구찌.





화이트 터틀넥 가격
 미정, 화이트 셔츠
 57만원, 화이트 더블
 브레스티드 베스트
 1백만원대, 블랙 팬츠
 80만원대, 플라워
 모티브 레이스업
 슈즈 1백60만원대
 모두 프라다, 빌드한
 오토 미세라티 워치
 4천7백만원대 불가리.

네이비 컬러 자카드 재킷,
 블랙 니트 카디건,
 스카프와 네이비 팬츠 모두
 가격 미정 구찌,

구찌 02-3444-3169
 Z제나 02-2016-5325
 프라다 02-3442-0939
 닐 바렛 02-3444-1708
 베르사체 02-514-3788
 솔리드 울브 02-514-8612
 존 갈리아노 02-6905-3992
 짐 샌더 02-6905-3756
 미소니 02-3449-5943
 오메가 02-511-5797
 불가리 02-2056-0172
 드비어스 02-3438-6116



헤어 황지희
 메이크업 이미영
 캐스팅 디렉터 김우리
 스타일리스트 윤은영
 어시스턴트 홍소연
 세트 스타일리스트 최훈화
 에디터 배미진



1

2, 3

New Autumn Tale

지난 파리 패션 위크의 디올 2012 F/W 컬렉션이 서울 평창동에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재현되었다. 하우스의 시그니처 룩에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한 디올 레이디와 밀리터리 무드의 디올 옴므가 새로운 시즌을 알렸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요즘이지만 패션계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 패션 위크의 런웨이에 올랐던 컬렉션 룩이 국내에 속속 도착하고, 이를 직접 볼 수 있는 프레스 행사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12일,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크리스찬 디올의 2012 F/W 여성과 남성 컬렉션 행사가 소름 돋게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펼쳐졌다. 국내 프레스는 물론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11개국 총 6개국의 프레스 70여 명이 참여한 아시아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2012 F/W 시즌을 끝으로 디올 레이디 하우스를 떠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빌 게이튼의 마지막 무대를 통해 지난 시즌에 이어 1940년대 디올 아카이브 룩을 성실하게 계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레리나에서 영감을 받은 듯 하늘하늘한 오간자 플리츠스커트와 오프숄더 형태의 니트 톱, 한껏 부풀린 풀 이브닝 스커트 등을 선보였고, 발목을 여러 번 묶는 스트랩 슈즈는 발레리나가 신는 토후즈를 연상케 했다. 핑크색 꽃무늬 자카드 드레스, 미디 길이의 가죽 스커트, 하운즈투스 체크 패턴의 재킷 등은 우아한 디올 레이디 룩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디자이너의 배려로 느껴졌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아셰가 이끄는 디올 옴므 컬렉션은 어떨까? 지난 시즌 블랙, 화이트가 돌고도는 모노톤에서 벗어난 듯 카키색을 이번 시즌 키 컬러로 선택했다. 그래서인지 카고 팬츠와 아이 재킷, 롱 케이프, 골지스 웨더 등 밀리터리 무드가 폴폴 풍기는 아이템이 주를 이뤘다. 특히 카무플라주 패턴의 패브릭을 새 모양으로 아슬하게 장식한 팬츠와 케이프는 그동안 디올 옴므에서 볼 수 없었던 룩이라 신선했다. 2012 F/W 디올 레이디와 옴므 컬렉션의 런웨이를 그대로 재현한 듯한 이번 행사는 디올만의 클래식한 감성으로 꾸민 공간과 함께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에디터 **이예진**

1, 2 디올의 디올리사모 백을 비롯해 퍼플 장식한 레이디 디올, 발등을 아름답게 장식한 슈즈, 컬러풀한 지갑 등 액세서리가 전시되어 있다. 3 이번 시즌 디올 옴므는 카키색을 키 컬러로 선정했다. 밀리터리 무드의 롱 케이프, 아이 재킷 등이 눈에 띄었다. 4 발레리나를 연상시키는 디올 2012 F/W 컬렉션.

Modern Mobility

프리미엄 유모차 열풍이 거세다. 편리한 기능성과 높은 디자인 퀄리티까지, 완성도 높은 유모차 제품이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부가부(Bugaboo)와 패션 디자이너 듀오 빅터앤롤프가 콜라베이션해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 파리 행사장에서는 멋진 유모차가 단순한 육아용품을 넘어서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모차의 영국식 표현인 부기(buggy)에서 따온 부가부(Bugaboo)라는 브랜드 네임은 '무한함', '장애물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이라는 의미다. 네덜란드 디자인 회사인 부가부는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유모차 디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구속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부모와 아이가 제약 없이 편안하게 외출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을 고안하는 것이 부가부의 최종적인 목표다. 여기에는 조작성이 쉬우면서도 아름다우며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제품을 선보이고자 하는 브랜드의 노력이 담겨 있다. 부가부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1백대 디자인에 뽑혔을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파리 방돔, 화려함의 상징인 파크 하얏트에서 열린 네덜란드 유모차 부가부와 빅터앤롤프(Victor&Rolf)의 콜라베이션을 발표하는 행사장은 여느 패션 컬렉션 행사장만큼이나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이미 2005년 바스 코르테스르와의 콜라베이션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니먼 마커스, 2008년에는 마크 제이콥스, 2009년 폴 프랭크, 2011년 미소니와의 콜라베이션을 통해 멋진 디자인을 선보인 부가부의 프리미엄 에디션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올해 세계적인 디자이너 듀오 빅터앤롤프와 콜라베이션해 탄생시킨 '나의 첫 번째 차(My First Car)'라는 슬로건의 제품은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능성을 강조해 부가부의 목표인 '아무런 구속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아방가르드하고 유머러스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빅터앤롤프는 유모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아이에게 생애 첫 드라이브 경험을 선사하는 존재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클래식한 스포츠카 스타일의 그레이 톤 패브릭, 마치 자동차 핸들처럼 수작업으로 스티칭한 가죽 느낌의 휠 스킨과 캐노피, 핸들바는 매우 럭셔리하다. 또 캐노피 뒷면에 배치한 창을 통해 아이와 부모는 언제든지 교감할 수 있다. 마치 자동차 휠처럼 생긴 바퀴에는 빅터앤롤프의 엠블럼이 새겨져 있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풋 머프가 있다. 배시넷 뒷면에는 'bb-♥-V&R'라고 쓰인 유머러스하고 사랑스러운 번호판이 장식되어 있다. 부가부의 완성도 높은 특별한 유모차는 특별한 아이를 위한 고가의 액세서리라는 의미보다는, 활동적인 엄마와 아이가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라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옳을 듯. 부가부와 빅터앤롤프의 콜라베이션 제품은 국내에서는 오는 9월부터 만나볼 수 있다. 에디터 **배미진**



1 네덜란드의 패션 디자이너 듀오인 빅터앤롤프, 아방가르드하고 진취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2, 3 자동차를 연상케 하는 창과 바퀴가 인상적인 부가부 빅터앤롤프 리미티드 에디션.



3

all about Bags

여자에게 가방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다. 어떤 가방을 드느냐는 사회적 지위, 자신의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자존심이다. 감각적인 잇 백으로 여심을 흔드는 마이클 코어스, 마크 제이콥스, 랄프로렌 등 유명 명품 브랜드의 파트너로서 핸드백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몬느가 핸드백을 주제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을 오픈한다. 세계 최초 테마 핸드백 박물관, '백스테이지(Bagstage)'는 가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역사의 장이다.

핸드백의 모든 것, 백스테이지

지난 7월 신사동 가로수길에 문을 연, 핸드백을 주제로 한 빌딩인 백스테이지는 지상 5층, 지하 5층 규모로,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 시몬느의 자체 브랜드인 0914(onlineonefour) 매장, 핸드백 편집 매장,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무임 대로 매장, 누구나 핸드백을 직접 제작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인 공방, 그리고 다양한 가죽 소재를 전시·판매하는 소재 전시장으로 구성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개념 복합 문화 공간이다. 이는 시몬느의 창립 25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가방의 역사를 살펴보고 아카이브를 보존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기획·준비해온 거대 프로젝트다. 지상 1층에 위치한 0914 매장은 시몬느의 독창성 있는 자체 브랜드로, 퀄리티 높은 소재와 클래식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이 트렌드에 민감한 20대는 물론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40~50대까지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2층에서는 레베카 밉코프, 키쉴리 밀리, 오로톤 등의 가방 브랜드를 편집 스텝 형식으로 선보인다. 지하 2층의 신진 핸드백 디자이너들을 위한 무임대로 매장에서는 그들의 독특한 색깔과 디자인이 담긴 핸드백의 세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같은 층에는 누구나 핸드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핸드백 제작 경험 공간인 공방을 배치해 재봉틀, 로고를 새겨주는 불박 기계 등 핸드백 제작을 위한 기계와 소도구가 장인 체험을 도와준다. 지하 3층과 4층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 브라질 등 시몬느가 전 세계를 통해 개발한 5백여 종류의 가죽이 전시되는데 핸드백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옷, 신발,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일반 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다.

세계 최초 핸드백 테마 박물관, 시몬느 뮤지엄

설치미술가이자 영국의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박물관 수석 큐레이터를 역임한 주디스 클라크(Judith Clark)가 큐레이팅을 맡은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은 이곳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이자 심장부다. 3층부터 5층까지의 공간에 지난 3년간 소더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식 경매부터 전 세계 컬렉터들을 통해 수집한 3백50여 점의 핸드백을 전시한다. 시몬느 뮤지엄이 소장하고 있는 핸드백 컬렉션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서양 패션사에 한 획을 그은 핸드백들이 중심을 이루는데, 1500년대 희귀한 핸드백에서 21세기 최신 잇 백까지 모두 만날 수 있다. 아르데코 양식의 클러치백, 하노버의 마리 공주 침실에 있던 모노그램 장식 실크 란제리 백 등의 과거 핸드백과 함께 에르메스 버킨 백, 펜디 바게트 백, 구찌 뱀무 토트백 등에 이르는 현대의 백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가방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을 것. 특히 5층 공간에는 세계 최초로 개장하는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펜디, 프라다, 구찌, 에밀리오 푸치, 미쏘니, 베르사체 등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와 협업한 특별 전시전이 열리는데, '이탈리아의 색깔'이라는 주제로 이탈리아의 역사와 전통을 표현한 컬러들을 그들의 브랜드와 제품에 반영시켰다. 주디스 클라크는 이번 박물관 프로젝트를 위해 핸드백 수집에서부터 예일

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핸드백 역사를 다룬 도록 <핸드백의 모든 것: 시몬느 핸드백 뮤지엄>을 제작했으며, 박물관 큐레이팅과 인테리어까지 모두 관여해 핸드백 박물관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그녀는 의류에 사용하는 일반 마케팅과는 달리 실제로 사람이 핸드백을 들고 있는 듯한 사실적인 제스처와 다양한 포즈로 가방을 부각시킬 수 있는 빈티지 실루엣의 마케팅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여성의 몸과 핸드백이 만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형태가 어떠한지를 표현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 형태의 캐비닛 제작을 통해 역사적인 핸드백 유물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시되고 연출되는 새로운 박물관의 전시 형태를 보여준다. 시몬느의 박물관 대표주자 "누구라도 이 건물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어딘가 적어도 하나의 핸드백을 들고 나가길 바랍니다"라고 기획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처럼 백스테이지는 박물관을 통해 그 뿌리와 역사를 기억할 핸드백의 어제와 핸드백 산업의 혁신, 새로운 트렌드를 담아낼 매장으로 대표되는 핸드백의 오늘, 그리고 신진 디자이너들이 그려나가는 핸드백의 내일을 한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문의 02-3444-0912 에디터 권유진



2

3



5



4

1 핸드백 뮤지엄 3층 전시관 전경.
2 (이탈리아의 색깔) 특별 전시관 전경.
3 뮤지엄 복도에 핸드백과 관련된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4, 6 4층 전시관에서는 빈티지 핸드백 컬렉션을 선보인다.
5 알렉산더 맥퀸의 유니온 잭 클러치를 강렬한 디테일의 의상을 입은 마네킹과 함께 전시했다. 전시장에 설치한 마네킹들도 오로지 핸드백 뮤지엄을 위해 특별 제작했다. 7, 8 현대적인 핸드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르메스의 악어가죽 버킨 백과 알렉산더 맥퀸의 유니온잭 클러치까지,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세기의 핸드백들이 모두 전시되어 있다.



6



2

8

Luxe fragrant

국내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특별한 프리미엄 향수들이 속속 론칭한다. 자연의 순수한 향기를 담은 조말론, 우아함의 극치인 펜할리곤스, 부티크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까르띠에까지 더욱 다채로워진 향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펜할리곤스 주니퍼 슬링 영국 왕실이 가치를 인정하는 브랜드에 허락된 왕실 문장 사용 권한(royal warrant)을 보유한 향수 브랜드 펜할리곤스는 1백4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클래식한 브랜드다. 손으로 직접 짠 베르가모트부터 금보다 값비싼 재스민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유기농 원료와 1백43년간의 블렌딩 노하우로 명품 향기를 선보인다. 최신 제품인 주니퍼 슬링은 런던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영감을 얻은 향수로, 붓꽃 향기와 브랜드, 브라운 슈거, 앰버 향이 어우러진 관능적인 향기를 담았다. 50ml 24만8천원. 문의 02-6905-3512

량방 진노 쿠투르 최근 각광받고 있는 패션 하우스의 향수 중 오는 8월 말 새롭게 선보이는 량방 진노 쿠투르. 라즈베리와 바이올렛 잎사귀로 시작하는 톱 노트에서 매그놀리아를 담은 미들 노트, 바닐라와 머스크 향기가 관능적인 베이스 노트까지 감각을 일깨우는 우아하고 파우더리한 향기를 담았다. 50ml 8만7천원. 문의 080-800-8809

파코라반 원미리엔 앰슬러리 골드 퓨어 퍼퓸 두바이나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파코라반의 원미리엔&레이디 밀리엔 퓨어 퍼퓸의 2012년 8월 한정 제품. 골드 바를 연상케 하는 불꽃감 넘치는 패키지의 존재감이 강렬하다. 민트와 자몽, 오렌지의 상쾌한 톱 노트로 시작해 정미와 시나몬, 머스크가 어우러지는 스파이시한 미들 노트, 은은한 가족의 향기가 느껴지는 진한까지 럭셔리한 향기의 흐름을 자녔다. 100ml 11만원. 문의 080-363-5454

조말론 라인 바질&만다린 귀족적이고 심플한 패키지, 순수하고 아름다운 향기로 많은 이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꼽히는 정통 영국 브랜드 조말론이 드디어 국내에 론칭한다. 대표적인 제품은 라인 바질&만다린. 상쾌한 라임 향기에 특 쓰는 바질과 향기로운 백리향을 더해 독특한 조합을 이루어 클래식하면서도 청명한 향기를 낸다. 8월 31일부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30ml 8만원대. 문의 02-3440-2750

까르띠에 베제 블레 오 드 푸왈렛 오직 주얼리 부티크에서만 판매했던 까르띠에 향수의 판매처가 다양해져 새로운 향수를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최신 제품이 바로 베제 블레 오 드 푸왈렛이다. 피어는 한 떨기의 백합, 순수함 그 자체를 상징하는 향기를 담았는데 바닐라 향과 백합 향의 싱그러움이 조화를 이룬다. 마치 목 언저리에 꽃다발을 문지른 듯 은근한 향기가 매력적이다. 가격 미정. 문의 02-514-5167

존바비토스 이티산 남성 편집 매장에서 만날 수 있었던 존바비토스 향수가 국내에 정식 수입된다. 내추럴하면서도 세련된 패키지 인에는 모던한 남성들에게 어울리는 향기가 담겨있다. 캐러멜 컬러의 수공예 등나무 짜임으로 만든 패키지 인에는 시트러스를 테마로 한 감귤류와 허브의 조화로운 향기가 담겨 있다. 75ml 7만9천원. 문의 080-363-5454

히스토리스 드 퍼퓸 유명한 인물과 신화 속 인물이 태어난 연도로 이름을 붙인 독특한 프랑스 향수. 피부로 스토리를 읽는 향수라는 컨셉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어울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멀티숍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10 코르소 꼬모에서 만날 수 있다. 120ml 27만8천원. 문의 080-3018-1010

걸 by 10 코르소 꼬모 서울 향수 걸(Girl)은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 프로방스에서 온 티없이 맑고 순수한 소녀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특별한 향수다. 소녀시대를 뮤즈로 라이프스타일 콘셉트 스토어인 10 코르소 꼬모 서울과 컬래버레이션해 새로운 버전으로 선보이게 된 것. 향기의 거장 제라드 인토나가 만든 이 향수는 매그놀리아와 위스테리아, 델피니움 등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50ml 6만원대. 문의 080-3018-1010 에디터 배미진



skin Renewal

뿌리자마자 피부가 촉촉해지고 젊음의 생기를 더하는 특별한 미스트가 있다. 이미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 미스트에 안티에이징 기능을 더해 더욱 완벽하게 태어난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수분 공급을 넘어 안티에이징까지

아모레퍼시픽의 기존 미스트 제품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부터 까다로운 여성들에게까지 오래도록 사랑받아왔기에 새로운 안티에이징 미스트가 출시되었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안티에이징 라인인 타임 레스폰스 컬렉션에 추가된 이 특별한 미스트를 실제로 사용해보니 여름철 안개처럼 피부에 사뭇히 내려앉는다는 홍보 문구가 과장이 아니었다. 과거에도 아모레퍼시픽의 미스트는 분사력이 뛰어나 피부에 가볍게 내려앉는 촉촉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새로운 제품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분사력을 갖추었다. 뛰어난 안티에이징 효과를 지닌 어드밴스드 타임 레스폰스 콤플렉스™ 성분과 다양한 아시아 보태니컬 성분을 함유해 에센스같이 밀도 있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미스트인 것. 과거 30도에 불과했던 분사각이 60도로 넓어져 한 번만 분사해도 얼굴 전체에 고르고 넓게 퍼지면서 가볍게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얼굴 한 곳에만 강하게 물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어 쩡그리지 않고 우아하게 미스트를 뿌릴 수 있다. 또 입자가 더욱 미세하고 부드러워져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뿌려도 화장을 그대로 지속시켜주니 메이크업이 지워질 걱정 없이 수시로 건조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간편하게 뿌리는 안티에이징 에센스

최근에는 스킨케어 제품을 복잡하게 이것저것 사용하기보다는, 효과가 뛰어난 제품 몇 가지를 선택해 최대한 단계를 줄여 사용하는 것이 트렌드다. 따라서 피부에 가장 먼저 닿는 토너나 미스트 역시 기능성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새롭게 출시된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가 더욱 특별한 것은 안티에이징 성분을 가득 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물을 원료로 하는 다른 브랜드의 미스트와는 달리,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성분인 첫물 녹차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른 제품에서는 선보인 적이 없는 특별한 원료인 '녹차 세포수'를 더했다. 녹차의 생잎을 그대로 짜내 정제하고 농축한 녹차 세포수는 녹차의 유효 성분이 신선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특별한 원료로, 피부 재생을 돕고 거칠어진 피붓결을 정돈해준다. 함께 담겨 있는 첫물 녹차 성분이 피부 보습 인자의 발현을 촉진해 피부 세포가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이다. 일반적인 토너에서 느끼지 못한 확실한 촉촉함, 간단하게 뿌리는 것만으로도 마치 에센스를 바른 듯 확실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에센스도 아니고 미스트 하나 바꾸었다고 무엇이 특별해질까 싶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역시 모델에게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아모레퍼시픽의 미스트를 충분히 뿌려 마치 팩을 한 것처럼 두드리고 마사지해준다. 그만큼 메이크업이 잘 받는다는 의미다. 세안을 하자마자 급격하게 피부가 건조해진다거나, 메이크업이 자주 들떠서 고민이라면 새로운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를 만나보기를 추천한다. 80ml 6만원, 200ml 12만원. 문의 080-023-5454 에디터 배미진

Stay cool

여름휴가지의 강렬한 태양과 도심 속 자외선 때문에 붉게 달아오른 당신의 피부를 식혀줄 쿨링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맨 위쪽부터 아래로) **SO BIO 알로에베라 컨센트레이티드 모이스처라이징 젤** by 온뜨레 강렬한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에 집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보습 멀티 세럼. 진정 효과가 뛰어난 오가닉 알로에베라와 식물에서 추출한 히알루론산이 끈적임 없이 촉촉함을 남긴다. 피부가 예민한 남성의 애프터 셰이브 제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150ml 4만2천원. 문의 080-547-7000

맥 미네랄라이즈 차저 워터 미네랄 이온 성분이 피부 속까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으로 보습도를 높이는 미스트. 아침에는 토너로 사용해도 좋고, 메이크업 후나 피부가 멍길 때 수시로 뿌려주면 금세 촉촉해진다. 보석 원석에서 추출한 미네랄 성분은 피부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공급해 생기를 부여한다. 100ml 3만5천원. 문의 02-3440-2645

클라린스 하이드라 쉐어 크림 건조하고 메마른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하는 가볍고 산뜻한 수분 크림. 석류와 알파인 월로우 허브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해 늘어난 모공을 조여주고 번들거리는 피지를 조절한다. 50ml 6만원. 문의 02-3014-2916

링콤 이드라젠 젤리 코스메틱 워터 알칼린 젤 텍스처 토너는 후끈 달아오른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 온도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다. 화이트 제스민과 프랑스산 장미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피부의 천연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카키오 추출물이 피부 장벽을 견고하게 만든다. 400ml 7만8천원. 문의 02-3497-9829

프로스틴 워터 인 크림 프로스틴만의 냉각 제형 기술을 응축한 수분 크림. 시원한 텍스처가 피부 온도를 낮춰주며, 수분 보유 능력이 뛰어난 사막 장미가 피부를 수분으로 가득 채워준다. 25ml 4만2천원. 문의 080-023-7007

리프레리 셀룰라 리바이탈라이징 아이 젤 가볍고 산뜻한 젤 타입 아이크림. 펩티드 콤플렉스, 오이 추출물, 히알루론산, 뽕나무 뿌리 추출물 등 눈가 부기를 비롯해 탄력, 색소침착, 주름 등 눈가 피부에 관련된 다양한 트러블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눈가를 위와 눈섭 뼈를 따라 자압해주면 부기가 빠르게 없어지고 눈가 피로를 덜어준다. 15ml 21만2천원. 문의 02-6390-1122

멜비타 영스킨 안티 블레미쉬 풀 감작스러운 뽕나무 지나 여드름이 난 부위에 바로바로 진정되는 트러블 케어 제품. 가볍고 콤팩트한 사이즈와 휴대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바르기 좋다. 페퍼민트 성분이 들어 있어 쿨링 효과를 느낄 수 있을 듯. 5.5ml 3만3천원. 문의 02-544-2505

불가리 소스 디펜스 마스크 불가리만의 차별화된 활성 성분인 산소 캐리어가 독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디톡스 수딩 마스크. 일주일에 1~2회 꾸준히 사용하면 쉽게 건조해지지도 않고 메이크업도 잘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듯. 50ml 14만원. 문의 080-990-8989

다올 하이드라 라이트 유스 에센셜 컨센트레이티드 소르베 에센스 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피부에 진정시키는 아이스 수분 에센스. 다음 단계 스킨케어 제품의 흡수와 효과를 높이는 부스터 기능뿐만 아니라 초기 노화를 예방하는 안티에이징 기능까지 겸비했다. 30ml 8만9천원. 문의 02-3438-9537

블리스 트리플 옥사젠 인스턴트 에너자이징 아이 마스크 여행이나 출장 시 눈가 부기를 해결하고 싶을 때 추천하는 간편한 패카지의 아이 마스크. 너도밤 나무, 식물성 콩 영양분이 눈가 주름을 완화하고 비타민 C 에스테르가 눈가를 화사하게 만든다. 냉각고에 5분 정도 넣어두고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5.5mlX4 9만3천원. 문의 02-514-5167

비오렘 아쿠아수르스 아이퍼펙션 세럼 차가운 3중 금속 불이 달린 쿨온 타입 아이 세럼. 건조하다 싶을 때 쓱쓱 굴러주면 하연 되어 간편하다. 금속 불을 눈섭 뼈를 따라 마사지한 후 관자놀이를 눌러 자압하면 눈가의 부기와 아이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15ml 5만1천원. 문의 02-3497-9840

프로스틴 매직 인 미드나잇 마스크 비킹스 후 푸삭해진 피부를 수분으로 가득 채워줄 수분 수면 팩. 도톰하게 펴 바르고 자면 밤사이 불규칙한 유수분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눈가를 피해 피부결대로 마사지할 것. 10mlX3 2만4천원. 문의 080-023-7007 에디터 **이예진**

Number one serum

에스티 로더를 대표하는 얼굴, 갈색병이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세럼이 출시된 지 30년이 넘었다. 수많은 신제품 가운데 베스트 세럼으로 자리 잡으며 그 이름만으로 신뢰를 주기란 쉽지 않은 일. 직접 사용해보니 확실한 제품력이 그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에스티 로더 최고의 베스트셀러

갈색병을 이야기할 때 수치를 빼놓을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1분에 7병씩 판매,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독자적인 기술 특허, 5점 만점에 4.8이라는 소비자 최고 평점을 받은 베스트셀러. 바로 에스티 로더의 갈색병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세럼을 설명하는 숫자는 써본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믿음을 더한다. 수많은 제품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온 갈색병 세럼이 탄생한 지 30년이 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신제품의 홍수 속에서 꾸준한 신뢰를 받으며 인기를 누리기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입소문으로 인정받은 확실한 제품력과 효능,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집중적인 안티에이징 케어가 필요한 40~50대는 물론, 초기 노화 예방이 필요한 20~30대까지 연령과 피부 타입을 막론하고 폭넓은 지지를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이야 독자적인 성분과 첨단 테크놀로지를 집약한 화장품이 대거 출시되었지만 처음 이 세럼이 출시된 1982년 당시만 해도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의 탄생은 획기적이었다.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한 에스티 로더 연구소는 전통적인 스킨케어를 스킨 리페어 단계로 업그레이드해 노화방지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 손상을 밤 시간 동안 개선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보습의 중요성을 발견했고, 수분 공급에 탁월하다는 비피두스와 히알루론산을 주원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수많은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히알루론산 화장품의 시초가 바로 이 갈색병 세럼이라는 얘기. 발림성이 좋은 촉촉한 질감 역시 주목받았는데, 빠르게 흡수되는 가벼운 텍스처는 혁신적인 시도였다. 갈색병 세럼의 패키지나 콘셉트, 제품력 등을 모방한 제품이 속속 등장했지만 30년 넘게 쌓아온 혁신적인 피부 과학 노하우를 따라갈 수는 없을 터.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구입한 고객들은 다시 갈색병으로 돌아오곤 했다.

내 피부를 위한 확실한 투자, 갈색병 세럼

수많은 화장품을 써보고 접할 일이 많은 에디터는 그 분야에서 정통성이 있는 브랜드인지, 진짜 좋은 제품이 무엇인지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티 로더의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세럼은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피부 톤이 칙칙해지기도 하고 좁쌀 같은 뽀루지가 나는 등 크고 작은 피부 트러블로 고생할 때 어김없이 찾게 되는 제품이다. 상처를 치유하고 다독여주는 연고 같은 존재일까. 이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에스티 로더의 독자적인 크로노룩스™ 기술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부 자체를 재건하는 이 기술은 자외선, 흡연, 스트레스 등 일상적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특히 바깥스 후 지친 피부를 원상 복구하는 데 효과를 톡톡히 보기도 했다. 평소보다 2배 많은 양을 스포이트 가득 채워 충분히 흡수시켰더니 피부 조직이 탄탄해지면서 금세 생기를 되찾았다. 갈색병 세럼의 가장 큰 장점은 다음 단계 제품의 효과를 높여주고, 피부 고민에 따라 특화된 세럼을 덧바를 수 있는 필수 세럼이라는 것이다. 에디터 같은 경우엔 칙칙한 피부 톤이 신경 쓰여 갈색병 세럼을 바른 후 에스티 로더 '이븐 스킨톤 일루미네이터'를 사용했는데, 전문 케어를 받은 듯 달라진 안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갈색병 세럼을 처음 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트러블 케어로 단기간만 사용하기도 했지만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은 아침저녁으로 꾸준히 사용하면서(3개월이면 바닥을 드러낸다) 한 통을 깨끗이 비웠던 때다. 결국 꾸준한 신뢰를 갖게끔 하는 좋은 제품 하나를 골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노화를 지연시키고 건강한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문의 02-3440-2772 에디터 **이예진**



ESTÉE LAUDER

ESTÉE LAUDER

Advanced
Night Repair

Synchronized
Recovery Complex

Complexe de réparation
synchronisée



카탈로니아의 실험적인 미니멀리즘 호텔

L'Hotel les Cols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 건축 회사 RCR이 제작한 매끄러운 유리 상자 5개가 초록의 메탈 소재와 나무, 대나무와 만나 '호텔 레 콜'이라는 미니멀리즘을 탄생시키며 자연과 근본적인 대화의 한 형태를 제시한다.

▶ Les Cols Pavellons, av. Les Cols, 2, 17800 Olot, Espagne Tel. 00 34 699 813 817 www.lescospavellons.com (1박(아침 식사+피크닉 바구니 포함) 2백75유로)

▶ Mas Les Cols, Carretera de la Canya s/n. Olot Tel. 00 34 972 269 209 www.lescots.com 레스토랑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샘플러 메뉴 80유로



1, 3, 4, 10 유리 외 메탈로만 이루어진 파빌리온의 골목길과 가족의 넓은 농가를 개조해 만든 현대적인 레스토랑. 2 침대는 침상에 허용된 단 하나의 가구이다. 유리 재질의 벽은 모두 움직임을 비추는 카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5, 6 거친 메탈, 아름다운 금이 대비되어 전통적인 조화를 이룸에 따른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7, 8, 9 로컬 푸드만 사용하는 1층 레스토랑의 다양한 음식과 직접 키우는 농작물. 11 미니멀리스트 콘셉트에 따라 세련대의 수도꼭지를 모두 없앴다.



예측 불가능한 창조적인 공간과 휴식의 시간

엄밀히 말해 이곳은 스페인이 아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에 걸쳐 위치한 카탈로니아 지방은 독립적인 커뮤니티이다. 프랑스의 한 지방처럼 불리는 프랑스 카탈로니아와는 달리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은 자발적인 국민투표에 의해 독립했다. 프랑스 국경에서 차로 1시간, 딱 코스타 브라바 해변까지의 거리만큼 걸리는 단조로운 지형을 단조로운 시선으로 좇다 보면 올롯(Olot)이라는 지방에 도착한다. 그리고 전원풍경에 둘러싸인 가로사(Garrotxa) 공원 근처에 위치한 레 콜(Les Cols)이 나온다. 이곳의 분위기는 어떤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도할 것만 같은, 마치 나침반 없이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곳의 흙에 발을 내딛는 순간 커다란 감동에 할 말을 잃게 될 것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 옛 농가 건물의 벽을 지나 개천을 건너면 용암의 골짜기 카벳처럼 드리운 땅에 도착한다. 이곳이 화산 지대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감탄사를 내뱉을 것이다. 광선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주는 단 하나의 열린 문은 마치 파빌리온의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식물 박스 같은 느낌을 전해준다. 5개의 큐브는 어항만큼이나 투명하고 초록색으로 채색된 메탈 소재 혹은 반투명의 흰 대나무 스크린으로 견고하게 나뉘어 있어 마법에 빠진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공간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는 이 느낌은 처음에는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을 바라보는 것은 온통 '자연과 하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선입견과 관습들로부터 자유로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동맹이로 이루어진 풍상의 끝은 침묵과도 닮아 있는데,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채 다이빙할 수도 있다. 또 이곳에 머무는 방문객들은 랜드 아트처럼 꾸민 아름다운 정원을 각자 소유할 수 있다. 어디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 특별한 독창성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사치의 진수를 보여주기도 한다. 세프 피나 푸이그데발(Pina Puigdevall)은 1990년 초에 레 콜 1층에 가족 농장 레스토랑을 열었다. 그녀가 태어나고 삶을 뿌리내린 곳이기 때문이다. 로컬 푸드만 사용하는 그녀의 요리는 간간한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했다. 2002년 그녀는 건축사무소 RCR의 트리오인 라몽 빌랄타(Ramon Vilalta), 카르메 피겐(Carme Pigem), 라파엘 아란다(Rafael Aranda)를 불러들였다. 그녀는 건축가들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나는 가장 친밀하면서도 기쁨의 언어로 넘쳐나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원해요." 그에 따라 건축가들은 메탈 소재의 모던한 박스를 디자인했다. 이 박스는 거칠지만 귀하고, 그녀의 요리를 연상케 하며, 불규칙적이지만 관대함과 부드러움이 묻어나며, 현대적인 것이 곧 전통이 될 수 있음을 표현한다. 고객들은 호텔에서 느끼는 순간의 평온함을 다음 날도 어김없이 느끼고 싶어 한다. 그것을 잘 아는 피나의 형제 호아킵과 그의 아내 주디트는 그들의 땅을 내주어 만족스러운 시간을 연장시켰다. 호텔에 묵은 고객들은 다음 날 피크닉 바구니를 하나씩 건네받는다. 호텔을 떠나며 그 옆에 펼쳐진 숲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말이다. [S]

글 주느비에브 도르타니(Genevieve Dortignac) 사진 알베르몽(Alberfont) 번역 지은경





Mauritius VS. Maldives

신혼여행을 계획하는 커플들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하는 곳이 바로 모리셔스와 몰디브다. 가장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클럽메드 리조트 두 곳, 모리셔스 알비옹과 몰디브 카니를 기준으로 비슷하면서도 너무나도 다른 몰디브와 모리셔스의 매력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2

해양 스포츠의 천국, 모리셔스

프라이빗한 풀빌라와 잔잔한 바다, 알록달록한 물고기와 함께하는 스노클링만을 생각하며 모리셔스를 찾았다면, 큰 오산이다. 모리셔스에서는 흔히 몰디브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라군 빌라를 찾아볼 수 없다. 클럽메드 취재를 위해 직접 찾은 모리셔스에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너무나도 다이내믹한 파도와 화창한 날씨, 완벽한 익스커션 시설을 두고 풀빌라에만 있기에 아쉬운 것이다. 또 모리셔스에 위치한 대부분의 리조트들에서는 수상스키와 스노클링, 바텀 보트와 같은 대부분의 액티비티를 리조트 비용에 포함하고 있다. 모리셔스에 위치한 클럽메드 알비옹 리조트(La Plantation d'Albion)는 클럽메드 체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최상위 등급의 리조트다. 알비옹 리조트는 다른 리조트에 비해 규모가 꽤 큰 편이라 하얀 모래가 인상적인 평온한 느낌의 바다와 모리셔스의 상징인 철쭉 같은 검은 바위에 멋진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두 가지 얼굴을 담고 있다. 익스커션은 물론 식사, 여행을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알코올 음료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 올인클루시브(all inclusive)인 클럽메드의 매력은 모리셔스에서도 확실하게 꽃을 피운다. 신혼여행객들이 레스토랑이나 룸서비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클럽메드에서는 익스커션과 식사가 모두 무료이기에 부담 없이 원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또 다른 리조트와 달리 배우고 싶은 해양 스포츠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는 G.O가 모든 프로그램을 함께 해준다는 것도 장점이다. 해양 스포츠의 기초 지식은 물론 전문적인 도움까지 줄 수 있기에 오랜 기간 머무른다면 단계적으로 스포츠를 배울 수 있다. 특히 세일링이나 수상스키는 일반적인 리조트에서 즐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프로그램까지 지원하고 있다. 안전까지 책임지니 더욱 믿음직스럽다.

클럽메드 알비옹만의 특별한 레스토랑 서비스

모리셔스 클럽메드 알비옹은 최상위 리조트답게 특별한 레스토랑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데, 클럽메드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뷔페 레스토랑은 물론 라 파르(La Phare) 레스토랑에서 예약한 투숙객들에게 수준 높은 프렌치 퀴진을 선보인다. 알비옹의 이 특별한 레스토랑은 뷔페 레스토랑의 번잡함을 피하고 싶은 신혼여행객들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다. 예약만 한다면 모리셔스의 바다 위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노을을 즐기며 완벽한 웨이터의 서빙과 함께 저녁을 즐길 수 있다. 과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모리셔스의 수준 높은 로컬 와인과 신선한 해산물, 채소를 사용해 레스토랑은 물론 알비옹 리조트의 격을 높여주는 훌륭한 음식들이 차례로 나온다.

유러피언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로 꼽히는 곳인 만큼, 완벽하게 차려입은 유러피언들 사이에서 모두가 꿈꾸는 휴양지에 와 있다는 화려한 꿈에 잠길 수 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수영장 옆에 위치한 한적한 바에서 칵테일을 즐기거나 해변으로 나가 매일 다른 주제로 열리는 비치 클럽 파티를 즐길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도 클럽메드의 가장 큰 매력인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은 유효하다. 그 어떤 것을 즐기더라도 추가 비용이 없다. 값비싼 휴양지 물가를 걱정하지 않고, 그 어떤 계산서에도 사인할 필요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다. 그 어떤 계획을 세워도 모리셔스 알비옹에서는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다.

프라이빗한 신혼여행을 원한다면, 몰디브

액티브한 신혼여행객을 위한 모리셔스를 뒤로하고 몰디브로 가보자.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몰디브는 하나의 섬에 단 하나의 리조트만 있을 정도로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것이 장점이다. 물론 몰디브에서도 다양한 해양 익스커션을 즐길 수 있지만 모리셔스와 비교하면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한 편이다. 물론 모리셔스에 비해 몰디브는 빌라 컨디션이 뛰어나고 특별한 장비 없이 숙소에서 바로 스노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긴 신혼여행 기간 동안 방 안에만 있을 수 없기에, 적당한 해양 스포츠와 휴식이 모두 필요하다면 모리셔스보다는 몰디브를 추천한다. 몰디브가 아니면



4



5



6



7



8



9



10



11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프라이빗함과 아기자기한 분위기, 현실이 아닌 것만 같은 투명한 물빛은 신혼여행이 아니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몰디브에 위치한 클럽메드 카니(Maldives Kani Resort)는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 공항에서 스피드 보트로 단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또 물가가 비싼 몰디브에서 클럽메드의 올인클루시브 서비스는 역시 빛을 발한다. 클럽메드 몰디브 카니 패키지를 예약하는 것으로 1일 3식의 식사와 스낵, 무제한 음료와 주류 서비스, 다양한 스포츠 강습과 나이트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일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스케줄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어떤 서비스도 비용 부담 없이 오로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 가능하기에 신혼여행을 진정한 여행으로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 비용 때문에 고민했던 세일링 강습, 산호섬까지 보트로 이동해 즐기는 카약, 스쿠버 다이빙까지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섯타임에는 비치에서 즐기는 요가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클럽메드 몰디브 카니의 보석, 라군 스위트

몰디브 신혼여행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영화에서 본 듯한 특별한 스위트룸일 것이다. 클럽메드 몰디브 카니의 라군 스위트에는 거실과 바다가 보이는 욕실, 가구가 비치된 테라스가 있어 객실에서 오션 뷰를 직접 즐길 수 있다. 또 전용 테라스가 석호와 연결되어 언제든지 객실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다. 바다가 가까이 위치한 탁 트인 아일랜드 스타일 건물에 프라이빗한 테라스를 갖춘 비치 빌라에서는 석양을 조망할 수 있어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 스위트룸 투숙객들만 입장할 수 있는 만타(manta) 라운지는 지붕과 장식을 최소화한 구조로 어디에서나 석호의 환상적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라운지의 넓은 지붕은 목재와 유리를 사용해 몰디브의 강렬한 태양을 가려주면서도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에디터 배미진**

1 모리셔스 클럽메드 알비옹 리조트의 메인 풀. 2 알비옹 리조트의 빌라를 나사면 바로 만날 수 있는 비치. 3 초보지도 만타다까지 항해할 수 있는 세일링은 모리셔스의 상징이다. 4 모리셔스 알비옹의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풀빌라. 5 알비옹의 레스토랑에서는 환상적인 선셋을 감상할 수 있다. 6 알비옹에서 맛볼 수 있는 멋진 프렌치 메뉴. 7 몰디브를 대표하는 라군 빌라의 모습. 클럽메드 몰디브 카니 리조트 전경이다. 8 모리셔스에서 1년 3백65일 찌릿한 태양을 느낄 수 있다. 9 몰디브의 비눗속은 다른 어떤 곳보다 아름답다. 10 신혼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클럽메드 몰디브 카니 리조트의 객실. 11 엔타레다 바다에 뛰어든 수호영웅 고인된 몰디브 카니 만타 라운지 전경.

모리셔스 방문법 인천에서 홍콩까지 대한항공 이용 3시간 45분, 홍콩에서 모리셔스까지 에어 모리셔스항공 이용 9시간 45분 소요. **몰디브 방문법**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섬나라. 수도는 포트루이스, 공용어는 영어다. 통화는 모리셔스 루피를 사용. **몰디브 방문법** 인천에서 싱가포르까지 6시간 10분, 싱가포르에서 몰디브까지 4시간 25분 소요. **몰디브 현지 정보** 정식 명칭은 몰디브공화국으로 스리랑카에서 남서쪽으로 약 650km 거리에 있다. 1천1백90여 개의 작은 산호섬과 26개의 원초로 이루어져 있고 통화는 루피를 사용. **클럽메드 방문법** 클럽메드 모리셔스 클럽메드 알비옹 8월 출발 기준 클럽 패키지 2백90만원대, 딜러스 오션 뷰 패키지 3백만원대. 클럽메드 몰디브 카니 리조트 8월 출발 기준 슈퍼리더 2박+라군 스위트 2박 패키지 4백만원대(원복 항공권, 객실, 1인 3식 식사와 스낵 서비스, 무제한 음료와 주류 서비스, 스포츠 강습,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포함 비용) 문의 02-3452-0123 **홈페이지** www.clubmed.co.kr

몰디브 사진 제공: 클럽메드 코리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선명한 레드 컬러와 브라운 컬러의 조화가 돋보이는 소가죽 글래디에이터 샌들 89만원 **플로에**, 파스텔 블루 컬러의 새틴 소재로 포인트를 준 송아지가죽 샌들 98만원 **마크 제이콥스**, 크리스탈로 나비 모양을 표현한 여성스러운 샴페인 골드 컬러 샌들 1백15만원 **라골렉시오**, 미국적인 뱀가죽 무늬와 태슬, 비즈 장식이 멋스러운 샌들 80만원 **지미 추**, 블랙 & 화이트 배색이 모던한 스트랩 샌들 57만5천원 **구찌**, 새틴 플라워 장식이 화려한 에스파드류 샌들 1백5만원 **랑방**, 산뜻한 핑크 컬러와 골드 메탈 장식이 스타일리시한 샌들 1백13만원 **크리스찬 루부랭**, 앙증맞은 리본 디테일과 도트 패턴이 사랑스러운 샌들 63만원 **펜디** **스타일리스트 유원정**

플로에 02-6905-3670
 마크 제이콥스 02-6905-3674
 라골렉시오 02-6905-3775
 펜디 02-514-0652
 크리스찬 루부랭 02-6905-3795
 지미 추 02-3443-4570
 구찌 02-516-1411
 랑방 02-6905-3582

flat Zone

햇팬츠와 선 드레스, 수영복에는 플랫 샌들이 제격이다. 여름철 도심에서는 물론 해변가에서 더욱 빛을 발할 플랫 샌들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까르띠에

까르띠에 럭키 앙트라세 까르띠에가 럭키 앙트라세를 새롭게 론칭한다. '행운', '소원을 상징하는 디자인은 손가락을 교차하는 듯한 제스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매듭 모티브의 골드 링크 주얼리는 소중한 사람과의 사랑을 상징하며, 럭키라는 컬렉션 이름처럼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부적 같은 역할을 한다. 2010년 론칭한 이후 계속해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하우스의 시그니처에 기반을 둔 여성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문의 1566-7277

브레게 현대백화점 본점 부티크 오픈 브레게가 지난 5월 현대백화점 본점에 새로운 콘셉트의 부티크를 오픈했다. 부티크 인테리어에는 다양한 워치 디자인



브레게



루이 비통

JEWEL
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은은한 실버드 골드를 적용했으며 기요세(Guilloche) 패턴을 인그레이빙한 백월 글라스로 꾸몄다. 인력함이 느껴지는 소파와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브레게 하이피스 워치와 하이주얼리를 감상할 수 있으며, VIP 고객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서는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02-3438-6218

루이 비통 망부르 스핀 타임 레기타 루이 비통의 망부르 스핀 타임 레기타는 순수 향함용 시계의 대표적인 컬렉션. 8시 방향에는 레기타 컴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빨간색 스위치 버튼이 있으며, 향함 시작 후 버튼을 누르면 12시 방향의 크로노 표시가 사라지고 레기타라는 단어로 대체된다. 블루 사파이어 다이얼과 화이트 골드 케이스는 모던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주며, 악어 가죽 스트랩으로 고급스럽게 마무리했다. 문의 02-3432-1854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네일 라카 컬렉션 에스티 로더에서 퓨어 컬러 네일 라카 컬렉션을 론칭한다.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메이크업 디렉터 톰 패슈가 파리의 야경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켰으며, 매트한 '퓨어 컬러 네일 라카 비온드 블랙과 반짝이는 글리터가 담긴 메탈 매니아 컬렉션 2가지 라인으로 선보인다. 블랙 플럼, 골드, 브론즈 등 대담하면서도 신비로운 10가지 컬러로 구성되었다. 문의 02-3440-2772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 아모레퍼시픽이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를 선보인다. 고귀한 녹차의 정수를 담은 어드밴스드 타임 레스폰스 콤플렉스™ 성분과 다양한 아시안 보태니컬 성분을 함유한 에센스 제형의 고통축 안티에이징 미스트. 물 대신 녹차 세포수와 첫물 녹차를 넣어 수분을 빠르게 공급하며,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킨다. 문의 080-023-5454

라프레리 어드밴스드 마린 바이올로지 컬렉션 라프레리에서 새로운 컬렉션 '어드밴스드 마린 바이올로지'를 선보인다. 브랜드의 독보적인 성분인 셀라라 콤플

렉스와 천연 해양 미네랄 추출물을 담아 생기 없는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토닉, 에멀션, 무스 클렌저, 아이 젤, 데이 크림 등으로 출시한다. 문의 080-511-6626



라프레리

아모레퍼시픽



폭스바겐

CAR

폭스바겐 파사트 프리 론칭 이벤트 폭스바겐은 7세대 신형 파사트 출시를 앞두고 파사트 관심 고객 프리 론칭 이벤트를 실시한다. 신형 파사트의 다이내믹한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쇼케이스 이벤트와 다이내믹 시승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공식 홈페이지의 프리뷰 페이지에서 사전 관심 고객으로 등록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www.volkswagen.co.kr

렉스톤 렉스톤 W 렉스톤에서 프리미엄 SUV '렉스톤 W'를 선보인다. 기존 렉스톤이 가지고 있는 SUV의 탁월한 주행 성능을 이어받아 3중 구조 강철 프레임 보디와 4륜 구동 등 기본 요소는 물론 편안함과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최고급 세단 수준으로 실내 공간을 완성했다. 전면부 디자인은 풍부한 볼륨감과 입체적 감각을 실려 모던함과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문의 1588-3455



렉스톤



마이클 코어스

마이클 코어스 2012 F/W 프레젠테이션 마이클 코어스의 2012 F/W 프레젠테이션이 클럽 모우에서 열렸다. 이번 시즌에는 퍼와 가죽, 실크와 울 등 상반된 소재의 믹스 매치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면모를 드러냈다. 또 세컨드 라인인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의 의상을 비롯해 슈즈, 가방 등 전 라인을 선보였다. 문의 02-546-6090

글로벌에 찰리 백 글로벌에서 찰리 백을 제안한다. 2012 F/W 컬렉션에 등장한 다이아몬드 퀵링 디테일을 반영했으며, 멋스럽게 늘어지는 형태가 특징이다. 가방 내부에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우치 포켓을 부착해 실용성을 겸비했다. 문의 02-543-1737

폴 스미스 미니 스피커 컬렉션 폴 스미스가 미니 스피커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시즌엔 미니 자동차와 어두운 블랙 컬러의 스피커 박스, 전자 기타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버클 장식의 백백, 캔버스 백, 노트북 케이스, 지갑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문의 02-6957-5815

버버리 오츠드 백 버버리에서 오츠드 백을 제안한다. 빈티지한 라가 지 백에서 영감을 받은 이 백은 스트라이프 조각에 스티치 디테일을 넣어 수작업으로 완성했다. 송아지 가죽과 양가죽의 조합이 돋보이며, 골드 지퍼 장식

SHOWROOM



글로벌에

FASHION

폴 스미스

라프레리

버버리

V73

으로 볼드한 멋을 더했다. 문의 02-3438-6583

라프레리 새들 크로스 바디 백 라프레리는 '새들 크로스 바디 백'을 국내에 출시한다. 지난 시즌 뉴욕에서 처음 선보이자마자 할리우드 패셔니스타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백으로, 최고급 송아지 가죽을 정교한 수작업으로 완성했다. 문의 02-6004-0133

파치오티 여성 샌들 파치오티에서 화려한 디자인의 여성 샌들을 선보인다. 블랙, 레드, 옐로 등 과감한 컬러 매치와 터프한 스티치 장식이 돋보이며, 발등 부분이 U자형으로 감이 파여 있어 신었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문의 02-545-8757

V73 캔버스 백 이탈리아 핸드백 브랜드 V73이 한국에 상륙했다. 지난 12월 론칭한 이후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캔버스 백은 자연 친화적 염료로 가죽 프린팅 효과를 주었으며,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핸드 크래프트 작업을 통해 완성했다. 167가지의 다양한 컬러로 선보여 선택의 폭이 넓다. 문의 02-3438-6191

파치오티